

- ▶▶▶ [아달의 안목] 프로 불러를 꿈꾸는 진주제일이고 2학년 최민아
▶▶▶ [청소년뉴스]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 정보,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경가 회생제, 청소년 버스비 무료 전국 첫 무상교통 시작
최단 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명 중 7명 교육청 공무원
▶▶▶ [학교추천] 진주중앙고 융합·메신저 소용 프로그램 전개
진주중앙초 꿈광해설경남중등리그 10학년 우승
강남을 넘어가는데 허인 중·진주 대야중
영산고 코로나로 공동창화 원스 개배들 앤드링
새창고 FGN 금제미용사차녀중 쉬루 인증 교육기관 MJC 재발
▶▶▶ [특신] 공주시도 새로 6개월 행정청을 지다
▶▶▶ [기획] 생디다는 우리 모두의 권리다
▶▶▶ [제약소식] 코로나 19 가을 추계 진면 위소했지아
▶▶▶ [잇츠넛잇비]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2학년 4반
▶▶▶ [잇츠넛잇비] [사범] 진주제일이고 1학년 5반
▶▶▶ 19금 특전 속사나도 성병 증상?
▶▶▶ 알라 low 황사, 공사 발동 부고서 진주시청에 인종한목자관
▶▶▶ [뭐하고 놀아?] 친구랑 연인이랑 커피만들기 체험
▶▶▶ 필통 뒤집자트 실연장현을 때, 짝 어울리는 노래
▶▶▶ 필통실력실 코로나 19 방역역기조인 재운 학생가 잠정
▶▶▶ 진주 필통·학생 세상애 있던 글상? 실연동 글본이 글상들 가
▶▶▶ JOB을 잡아라! 태수나무한의원 유재는 원장을 만나라
▶▶▶ [세네통통] 꼭 봐야 할 청소년 영화를 대시
▶▶▶ [대학+진주] 연암공과대학교편
▶▶▶ [SOS 디터스]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 [TOP] 삼현 Top 하선빈에게 듣는 공부이야기
▶▶▶ [취자수집] 성관계 없는 성교육, 출생없는 출생업
우리는 성적 노출을 원하지 않아요
시행 문제 잘못 수정 책임은 우리
위험한 등골길 실 수면, 왜 대학에 없는가?
그래, 학생다운이 대체 뭐지?
▶▶▶ [필통우세동] 독자글모음
▶▶▶ [필통비모교식] 11월호 문제
▶▶▶ [광고] 고3 수능 응원 릴레이 퍼스티브

고3 수험생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
그 시간을 채워 온
여러분 모두는
박수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언제나 필통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청담화이트의원

진주대로 514 프리월빌딩 3층
(가좌동 경상대 정문 맞은편)

**피부미용, 레이저,
비만/체형,보톡스, 필러,
제모, 피부질환 등**
055-755-4755



[이달의 인물] 프로 볼리를 꿈꾸는 진주제일여고 2학년 최민아

볼링핀처럼 쓰러지더라도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볼링선수가 될 거예요!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여자고등학교에 재학중이고 2학년 볼링치는 최민아입니다.^^

Q. 볼링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나요?

A.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는데 중학교에서 볼링부를 모집한다는 체육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수상경력이 많다고 들었어요. 몇 가지 소개해주세요.

A.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중학교 2,3학년때 4인조 3등을 2번.(모든 대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3인조 3등, 2인조 3등을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나오면 금방 실종 날텐데 볼링은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 오기가 생겨 납니다.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또 다들 아시아시피 스트라이크를 치면 그 쾌감이 장난 아니에요. 이것 또한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Q. 재능 발견, 볼링을 원래 잘했나요?

A. 음.. 아닌 것 같아요. 처음 자세를 배우고 공을 들고 칠 때 생각하면 제가 볼링 선수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하죠. 정말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저는 항상 '노력파'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부끄럽지만 땀과 열정으로 이만큼 온 것 같습니다.^^

Q. 운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A. 제가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빨리 지친다는 점과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빨리 떨어진다는 점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걸 보완하기 위해 노력중이구요.

Q. 볼링을 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주세요.

A. 볼링의 가장 중요한 3대 요소가 있는데 바로 리듬, 밸런스 그리고 타이밍이에요. 저는 멘탈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스피어 미스를 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멘탈이 깨져요. 이럴 때 멘탈을 잘 잡을 수 있어야 흔들리지 않죠. 일반 볼링 동호인이나 초보자들도 마찬가지죠.

**"대학에서도 열심히 운동해 실업팀에 들어갈 거예요.
최고가 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행복한 볼링선수가 될 겁니다."**

Q. 정체가, 슬럼프 같은 시기가 있었나요?

A. 음..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3학년이잖아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진로와 대학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제 모습을 보면 항상 제자리걸음만 하는 것 같아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이걸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걸 아는데 한 번씩은 포

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다 같이 힘내서 핏팅 합시다.

Q. 자신만의 롤모델이 있나요?

A. 저의 롤모델은 저희 코치님입니다. 저는 코치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코치님처럼 멋진 선수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코치님 사랑합니다.♥

Q. 졸업후 진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A. 고등학교 졸업후에는 대학교에 진학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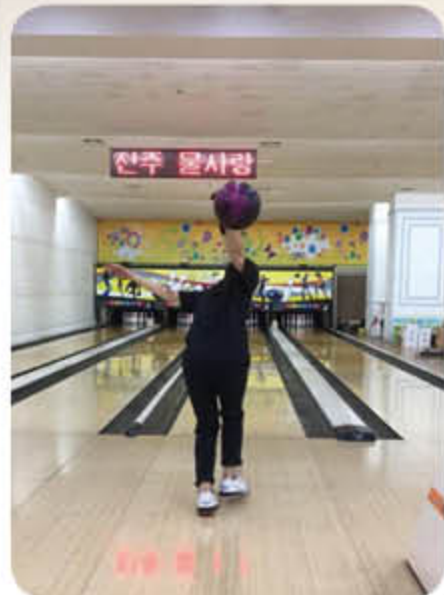
전하고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볼링을 빼면 전 뭐가 남을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볼링만큼 기쁨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Q. 자신의 대회 최고 점수? 비공인 최고점수?

A. 대회 최고점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비공인 최고 점수는 267점입니다. 퍼펙트를 한번이라도 쳐 보는게 소원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A.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 많은 대회가 취소됐어요. 누구나 바라겠지만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극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처럼 연습하는 탐마트 삼전 볼링장도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볼링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진주 삼전볼링장에서 연습합니다〉

대회가 많이 취소됐어요.

Q. 볼링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요?

A. 볼링은 배우면 배우수록 어려워진다는 게 매력인 거 같아요. 아무래도 항상 점수가 잘

이고 대학교에서도 열심히 운동해 실업팀에 들어갈 거예요. 최고가 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멋진 볼링선수가 될 것입니다.

Q. 최민아에게 볼링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A. 저에게 볼링이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루라도 볼링 연습을 하지 못하면 허



〈올해 사진에서 열린 경상남도 볼링협회장배에서 2인조 3등〉



〈2018년 전북 익산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배에서 중등부 4인조 3등〉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준비할 때. 늘 설레입니다〉



〈2019년에 열린 대회에 가서 다른 지역선수들과 친해졌는데 혼자였던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최근 열린 전국남여학생볼링대회 경기장면〉

경기 화성시, 청소년 버스비무료 전국 첫 무상교통 시작

경기 화성시는 11월1일부터 수도권 지자체는 처음으로 '청소년 무상교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월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7세이상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 12만 2283명이다. 30일 현재 '화성시 무상교통카드' 발급건수는 1만3000명이다. 시는 버스 이용률이 9~10%인 점을 감안할 때 시행 초기 발급률은 낮지 않다는 평가이다. 시는 청소년 무상교통이 시행되면 올해 말까지 3만 여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소년 무상교통은 후불지급 방식이다. 매월 사용한 교통비는 교통데이터 요금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관내 통행요금을 정산 후 현금으로 지급된다. 청소년 본인 개인 통장으로만 입금된다. 사용교통비는 단 한 건이라 하더라도 전액 입금된다. 시금고를 활용해 이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



된다. 화성시민 여부를 확인 후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본인여부를 확인한 뒤 화성시대중교통카드를 우편발송한다. 카드 제작기간은 약 2주가 소요된다. 시는 오는 2021년부터는 만 23세 이하 청년과 만 65세 이상 노령층까지 25만여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구간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관내에서 이동하는 구간이다. 청소년무상교통 시행을 위해 24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최근 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명 중 7명 교육청 공무원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5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가장 많은 직종은 교육청 공무원으로 약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6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5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 범죄'로 분류되는 범죄 유형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강간·강제추행, 성착취를 제작·배포, 성매수 및 알선 등의 행위와 ▲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매매,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 및 유혹 접객을



알선·매개하는 행위이다. 특별법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536명 중 교육청 공무원이 338명(72.4%)로 가장 많았고, 국가공무원이 68명(12.7%)으로 2위를 기록했다. 지방공무원이 62명(11.6%), 법원공무원이 2명(0.4%)로 뒤를 이었다.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 정보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그간 우편으로 고지돼 온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앞으로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오는 11월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가 시작되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의 세대주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읍·면·동에서 전입·전출한 성범죄자의 상세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상정보엔 성명, 나이, 사진, 키와 몸무게, 상세주소,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포함된다. 다만 모바일 고지서를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에 가입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와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우편으로만 고지돼 왔다. 발송 후 수신까지 3~5일이 걸리고 배송지연이나 분실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말까지는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



를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우편고지서가 발송된다.

한국 19세 청소년 평균 키 세계 60위권...1위는?

한국 19세 청소년의 남녀 모두 세계 60위권으로 35년간 크게 개선됐다는 조사가 나왔다. 11월 6일 일간 텔레그래프,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1985년에서 2019년 사이 전 세계 193개국 6500만명 이상의 5~19세 어린이 및 청소년의 키와 체질량지수(BMI) 등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 19세 청소년들의 평균 키는 35년 전만 해도 세계 130위권 수준이었는데, 남녀 각각 175.5cm, 163.2cm로 훌쩍 뛰어 올랐다. 세계 순위도 큰 폭으로 올라 남자는 68위, 여자는 60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1985년에만 해도 남녀 각각 평균 168.7cm와 157.1cm로 세계 132위와 133위였다. 보고서는 중국과 한국이 지난 35년간

한국 19세 청소년 평균 키 변화



평균 키에 있어서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19세 평균 키가 가장 큰 나라는 네덜란드였다. 네덜란드 19세 평균키는 남자 183.8cm, 여자는 170.4cm였다. 이번 연구는 의학 저널 '랜셋'에 게재됐다.

서울 중·고교 신입생에 입학지원금 30만원



내년부터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은 30만원 '입학준비지원금' (입학준비금)을 받는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서울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이 지원금으로는 교복이나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장교육감은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준비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25개 자치와 함께 2021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입학준비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30만원이다. 지난

해 교육부의 교육 공동구매 상한가 (30만1163원)를 감안해 책정된 금액이다. 내년에 서울 중·고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약 13만6700명으로, 내년에만 총 4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교육청과 서울시, 각 자치구가 각각 5대3대2로 분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학교가 기준이다.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지원 대상이다.

버카충 사라지나...편리·할인 내세운 청소년용 체크카드 붐물



지난 4월27일부터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카드 사용도 이에 맞춰 청소년용 체크카드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그동안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후불교통

카드를 쓸 수 없어 매번 선불교통카드를 충전해 사용해야 했다. 버스에 오른 뒤 카드 잔액이 없어 불편을 겪는 청소년들을 '금융 약자'로 보고 금융당국이 시행령을 개선한 것이다. 카드사들은 청소년에 특화된 혜택을 앞세우며 후불교통카드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청소년들이 처음 이용하는 금융회사를 성인이 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잠재적 고객 확보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발급된 청소년 후불교통 체크카드는 상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업종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10년간 청소년 63명이 배달하다 숨졌다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 63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11월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

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19세 이하 청소년 63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3092명이 부상 당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5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청소년 배달노동자들의 교통사고가 이어지지만 배달노동자 산업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차원의 감독·처분은 없었다.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와 제79조 관련 감독 및 처리현황은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0건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는 배달 중개업자에게 배달노동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제79조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 그 소속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청소년 3명 중 1명은 아침걸러, 건강·학습적신호



청소년 3명 중 1명은 아침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선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5일 이상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청소년 비율은 2015년 27.9%에서 2016년 28.2%, 2017년 31.5%, 2018년 33.6%, 2019년 35.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고등학생(36.7%)의 아침 결식률이 중학생(34.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여학생(36.9%)의 결식률이 남학생(34.6%)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기의 아침 식사는 건강은 물론 학습능력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지난해 중·고생 6만여 명의 아침 식사 빈도와 학업 성취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매일 아침을 먹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상 47.0%, 중 28.3%, 하 24.8%였다. 반면 아침을 늘 먹지 않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상 31.0%, 중 27.9%, 하 41.1%로 집계됐다.

경진고, IPSN 국제미용사자격증 취득 인증 교육기관 MOU 체결

진주 경진고등학교는 K-뷰티 산업의 열풍으로 해외에서의 취업이나 창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의 길을 열어주고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유일하게 IPSN(국제 자격협약 기구)과 손잡고 국제미용교육과정 MOU를 체결했다고 10월29일 밝혔다. 이로써 경진고 뷰티과 학생들은 재학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이수 후 미용사(일반) 국가자격증을 취득과 함께 일반검정형 자격증(메이크업 등)을 별도 취득하여 대부분 졸업시 1인 2자격증을 취득하는 물론 이번 협약체결로 국제미용사자격증도 취득 가능하게 됐다. IPSN의 미용국제자격증이란 호주, 뉴질랜드, 일본, 홍콩, 한국 5개국이 회원국이 되어 국가별 미용교육의 표준화를 이룬 통일된 기술인증이다.



IPSN 미용국제자격증은 해당국가 직업 학교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의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현장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만 발급 가능한 자격증이지만 IPSN KOREA에서는 경진고의 체계적인 미용수업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과정을 높이 평가해 미용관련 자격증을 취득 후 IPSN 국제미용사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MOU를 체결했다.

경진고 산업디자인과 전국 디자인 경진대회 수상

진주시 경진고등학교는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가 개최한 제10회 전국 고교생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동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0월13일 밝혔다. 이번대회는 '코로나19 예방 및 극복'을 주제로 한 공공캠페인 포스터 디자인 대회로서 경진고 산업디자인과 3학년 김다운 학생이 동상 표창과 상금 20만 원을, 정시은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편, 경진고 산업디자인과는 지난 9월 전국기능경기대회 7위(장려상) 수상에 이어 전국대회에서 다시 한번 수상함으로써 경남 최고의 디자인과로서 위상을 드높였다.



전국유일 승강기 특성화고 거창승강기고교 탄생



거창군은 경상남도교육청 교명심의위원회가 거창공업고등학교를 거창승강기고등학교로 변경하는 안을 가결했다고 10월8일 밝혔다. 거창승강기고등학교는 현재 거창공업고등학교를 거창승강기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동창회 임원 등 1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5%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고, 지난 7월 거창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교명변경을 의결했다. 거창승강기고등학교는 12월 경상남도교육청의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의 마지막 절차를 앞두고 있다. 행정절차가 끝나면 2021년부터 거창승강기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며, 향후 2023년 전국단위모집이 가능한 마이스터고로 전환하게 된다. 거창군은 이번 거창승강기고등학교 탄생으로 취업률 85% 이상의 한국승강기대학교, 승강기 전문단지 2개소, 37개 승강기업체, 국내 유일의 승강기 안전인증기관인 승강기 안전기술원 등 승강기의 모든 것을 갖추게 된다.

예술중심 대안학교 거창연극고 문 열었다



경남에서 예술중심 대안학교인 연극고등학교가 거창에서 문을 열었다. 거창군 위천면 모동길 11-15에 위치한 거창연극고등학교는 지난 11월5일 학교 3층 꿈베이스에서 공식 개교식을 가졌다. 개교는 지난 3월 1일자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기념식이 미뤄지다가 8개월이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이날 개교 기념행사를 하게 됐다. 거창연극고는 경남도교육청의 다양성 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지난 2017년 경남고성음악고, 밀양영화고에 이어 세 번째 예술중심의 대안학교로 개교했다. 1개 학년 2학급씩 전체 6학급 90명의 정원으로 개교한 거창연극고는 학생들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거침없이 상상하여 색다름으로 빛나자'라는 학교비전을 내세웠다. 교육철학으로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나를 알고, 너를 받아들이고, 더불어 사는 우리'라는 철학을 교육의 기틀로 삼았다.

진주교육청 멘토와 함께 꿈을 찾아 나섰다



경남 진주교육지원청 진로체험지원센터는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경상대학교와 연계해 '꿈·끼 가득 진로탐색 꾸러미' 쌍방향 온라인 진로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체험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진로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참여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문·자연·예체능 등 계열별로 자기주도적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위해 경상대 전문강사단 30여명이 실시간 쌍방향 멘토로 참여했다. 진로체험지원센터에는 진명여중과 진주해광학교를 비롯해 진로체험 전산망 '꿈길'에 신청한 진주, 경해여고, 진주제일중학교 등 총 956명이 5차례에 걸쳐 참여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별 신청 내용에 따라 체험 재료를 꾸러미로 배송하고, 이를 활용해 멘토와 멘티가 쌍방향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됐다.

경남 공립대안학교 금곡무지개고 개교기념식



경남도내 최초 민간위탁 공립대안학교인 금곡무지개고등학교 개교기념식이 10월26일 오후 학교에서 열렸다. 개교는 지난 3월에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이제서야 개교기념식을 갖게 된 것이다. 김해시 한림면 금곡로 182번길 43에 있는 금곡무지개고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개교한 학교다.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사업은 공립 대안학교 내 창의적 대안교육과정 도입을 위해 민간 전문가의 운영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민·관 협력 대안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교기념식에는 박종훈 교육감, 이종호 도의회 부의장, 조생연 교장과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해 개교기념식을 축하했다.

[지역소식] 코로나19, 가을 축제 전면 취소했지만

진주 곳곳 불 밝힌 유등, 소규모 예술공연 볼거리

진주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등 진주의 10월 축제의 대체 행사로 진행 중인 유등 전시와 문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진주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등 10월 축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면 취소됐다. 진주시는 축제 취소 대신 10월 축제의 메인 콘텐츠인 유등 전시 등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를 지난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개최한다.

유등 전시는 남강과 진주성, 도심 등 16개 지역에 소규모로 전시되고 있다. 남강에는 평화기원등, 진주성에는 100년의 추억 등, 진양호 노을공원에는 배방이 악단등, 이성자미술관은 공룡등, 서봉지에는 알을 품은 봉황등이 자리 잡았다. 금산면 금호지에는 동화나라등, 가호동 불레로 거리에는 눈사람등, 평거 녹지대에는 속담등, 진주시청 신

선동, 강주연못 연꽃·연잎등, 초전동 근린공원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등이 전시됐다. 하대·상대 셋강은 실크 축제 1000개가 실크등 거리를 조성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으며, 유등체험관에도 실크 소망등 200개가 전시됐다. 실크등은 지난해 진주남강유등축제에서 첫 선을 보여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지난 1월 특허청으로부터 진주실크등이 특허등록을 받기도 했다.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로 원도심 빈 점포 3곳을 임대해 오픈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예술제 라이브 방송', '나도 유튜버 체험', '소원도 공연', '설치미술과 옛 사진전' 행사와 거점 지역별 버스킹 공연도 진행한다. 예술제의 인기 프로그램인 뮤지컬 '축적상사리'는 비대면 녹화공연으로 부산·경남권

에 송출되며, 하이라이트 영상은 유튜브로 제작된다. 11월 중 조연급 드라마 배우와 시민이 함께 하는 비대면 온라인 연예인 토크쇼, 거점 지역별 버스킹 공연이 진행 중이다.

다양한 공간연출과 이색 공연도 소규모로 펼쳐진다. 지난 8월 개장한 중앙지하도상가 별별 뮤지엄의 확장판인 별별 문화공작소가 중앙로터리 자상 건물에 오픈한다. 숲과 바다 등 자연을 주제로 한 공간연출과 클래식 등 이채로운 쇼윈도 공연이 펼쳐진다.

한편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버스킹 공연장에는 매일 3회 방역을 실시하고 마스크와 소독제 비치,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등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한다. 공연 시간 대에는 다중이 밀집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부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히 준수해 나가고 있다.

진주시는 외지에 홍보를 최대한 자제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며 코로나19 방역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역에서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타지인들이 몰릴 것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진주중앙고 용감찬 메신저 소통 프로그램 전개

진주중앙고등학교는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원만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폭력 없는 어울림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다솜(사랑)의 용감찬 메신저함을 이용한 공감 소통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0월5일 밝혔다. 진주중앙고등학교는 지난 1학기에 용서-사과의 히스토리, 용서-사과의 다솜 메시지, 사투 용미(사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서를 미루지 말자) 스티커, 나에게 감사한 일, 감사 메시지, 감사 스티커, 찬사(칭찬) 노트·메시지·스티커로 구성된 다솜의 용감찬 메신저(기록장)를 제작해 1, 2학년 학생들에게 배부했다.

학생들은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용서-사과하거나 감사하거나 찬사(칭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솜의 용감찬 메신저에



있는 용서-사과 관련 메시지 양식 3가지, 감사 관련 메시지 양식 3가지, 찬사 관련 메시지 3가지 중에서 상황에 맞는 한 가지 양식을 골라 내용을 작성한다. 그 후 다솜의 용감찬 메신저함에 투입하고, 용사 이름이 용서-사과 관련 메시지를, 감사 전하미가 감사 관련 메시지를, 찬사 알리미가 찬사 관련 메시지를 수거해 교우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명신고 코로나로 총동창회 취소 선배들 멘토링 나섰다

코로나19로 최근 학교 동창회도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29일, 명신고등학교에서는 총동창회 대신 졸업 선배들이 모교로 찾아가 멘토링 행사를 펼쳐 화제가 되었다. 코로나로 동창회 행사가 모두 취소되자 그 대안으로 학교 후배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하며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입지를 다진 선배들이 멘토로서 후배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간격이 멀어진 요즘, 학교로 찾아와 전해준



선배들의 응원이 학교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진주동중 조광래FC 경남중등리그 B권역 우승



진주동중조광래FC가 경남축구협회 주관하는 2020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경남권역 중등주말리그에서 지난해 이어 B권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경남중등리그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수가 작았지만 쟁쟁한 팀들과의 경기는 순탄하지 않았다. 지난 9월 19일 강호 마산중앙중FC와 경

기에서 3:1로 승리하며 우승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전적 5승 1무 승점16점으로 경남중등리그 참가팀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빛나는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최우수지도자상 오광진 감독, 최우수선수 이정우(3학년, no.20), 골키퍼상 김수영(3학년, no.1)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8년간 취약계층에 희망 준 진주 대아중

진주 대아중학교 학생들이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보내 취약계층 및 긴급위기가정을 돕기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며 기부 물결을 이어가고 있다. 대아중학교 학생들은 대한적십자사 청소년 나눔실천 프로그램인 '희망나눔천사학교'에 참여하며 십시일반으로 용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를 실천해왔다. 대아중학교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지난 2012년 협약을 맺은 이후 8년간 약 1249만 9000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특히, 희망천사들의 따뜻한 기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바쁜 학교 생활에도 불구하고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부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진주여고 학생회 금연캠페인과 봉사활동



지난 9월에 이어 10월 8일, 진주여고 학생회 학생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금연캠페인을 하며 학교 주변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했다. 어깨띠를 하고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담배꽂초와 쓰레기를 주우며 학교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 시민들의 칭찬과 격려에 학생들은 더욱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진주여중, 지역환경 리더스 체험 아카데미 열어



진주여중가 경상대학교가 '환경의식 함양 및 기후변화의 이해'를 주제로 지역 환경 리더스 체험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경상대 링크플러스사업단과 진주대학생연합봉사단 위더스는 10월30일 진주여자중학교에서 2학

년생 26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의식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환경교육 전문리더 양성 교육을 수료한 대학생들이 환경의식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중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환경의식 함양(숲과 생태과학 및 생태계의 이해, 일상 속 온실가스 절감 방법) △기후변화의 이해(지구 온난화의 원인 및 기후 변화, 우리나라의 이상기후, 그린봇(카카오톡 채널) 활용 방법) △체험활동(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문산중, 박백범 교육부차관 디지털 수업 참관



박백범 교육부차관이 지난 10월13일 진주시 문산중학교와 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를 방문해 디지털 활용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박 차관은 학교 현장의 디지털 활용 수업 참관을 통해 컴퓨터실, 스마트 교실 구축 등 수업에 활용되는 디지털 기반시설 현황을 살펴봤다. 이후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예로 사학과 필요한 자원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디지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을 통해 교육 현장의 혁신적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선생님들의 '디지털 활용 수업 모형' 하나하나가 미래교육을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여중 나라사랑 벽화그리기 행사



진2020년 10월 10일(토), 진주여자중학교 나눔피아 자원봉사단 20명은 경남서부보훈지청, 진주대학생자원봉사단 '위더스'와 함께 진주여자중학교에서 나라사랑 벽화그리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나라사랑 벽화그리기에 직접 참가한 학생들은 경남서부보훈지청 담당자와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주는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게 되었다.

봉원중 자유학년 연계 진로체험



지난 2020년 11월 9일, 진주 봉원중학교는 1학년 자유학년 연계 진로체험으로 진주명식 숲속치즈스쿨에 다녀왔다. 목장의 젖소에게 풀, 우유먹이기 등의 목장체험과 치즈, 비누, 피자 만들기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을 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고 한다.

진주여고 1학년 학생들 진로체험 활동의 날



진주여자고등학교에서 지난 10월 30일 오전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활동의 날'을 개최했다. 해마다 10월에는 외부로 나가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에 많이 진출해 있는 선배들의 강의로 대체해 직업에 대한 소신과 경험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 등을 상담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멀리 서울, 부산에서 한걸음에 달려 온 선배들과 진주에서 여러 전문 직업군에서 활동하는 선배들, 몇 분의 외부 강사들이 후배들에게 직업에 대한 성향과 업무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사회적인 위치 등을 설명한 뒤, 질의와 응답시간이 가진 선배들은 "후배들과의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고맙다"며 "후배들이 궁금했던 질문들을 많이 해서 행복했다"고 전했다.

[특집] 공소시효 만료 6개월, 팽목항을 가다

여전히 세월호는 2014년 4월16일 그대로?

맹골수도 바다에서 들리는 고함소리가 아프다

필통기자단이 2017년에 이어 두번째 팽목항을 찾았다.

토요일 고박 12시간의 일정을 섣뚱 함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필통기자들에겐 기억조차 아득한 세월호이니 더 그렇다. 7년, 공소시효 만료가 눈앞임에도 변한 것 없이 여전히 길거리에서 진상규명 싸움을 하고 있는 현실. '진실'보다는 '가짜뉴스'에 더 노출이 많았을 그네들이다.

기억의 숲, 헛헛했다. 아니 뭔가 숨이 턱턱 막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유가족분의 말로는 나랏돈으로 시작한 해놓고 관리를 어디서도 하지 않는단다. 진도군에서도 나몰라라 방치중이라니 조금은 어이가 없었다. 고사되어 가는 희생된 학생들을 가리는 은행나무, 길가에 버려진 듯 너털너털해진 얼굴과 이름이 새겨진 바레버린 팻말은 쳐다보기도 미안했다. 기억은 커녕 방치였고 유가족분을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는 것 아닌가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판이었다. 세월호 추모를 위한 공사라면 황량함으로만 다가오진 않았을 것이다. 한쪽 편에 남겨진 세월호 기억관의 전기세조차 지원하지 않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마치 대단지 아파트공사에 반대하는 집 한 채 미당 쓸쓸히 남겨진 컨테이너. 언제고 확 밀어버리는 것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그 해 사월십육일 팽목항. 그 날의 울분, 그 날의 분노, 그 날의 기억, 그 날의 팽목항과 바다. 그 통곡의 시간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지금 같은 팽목항을 보여 주어서 안 된다. 그렇게 어딘지 모를 어딘가로 밀어내지 말아야 한다.

팽목항의 거센 바람이 컧가를 정신없이 때려댄다. 저 맹골수도 바다위에서 외롭게 죽어간 희생자들이 고함치는 듯하다. 지금 다들 뭐하는거냐고, 진실을 밝히는 7년이 아니라 망각의 7년이었냐며 따지는 듯 했다.

진주로 돌아가는 맘이 가볍지는 않았다.

필통의 두번째 팽목항.. 황량함이 느껴지는 공사



[필통은 4.16재단의 2020년 <희망마중>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진주시민 416기억순례길' 행사의 첫 번째 행선지인 '진도 팽목항' 편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을 죽여 놓고 하늘나라에서까지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 화가 났다"

배재현(사대부고2)기자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당시에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를 했지만 지금은 잊고 지낸다. 방문하기 전 참사 당시 영상을 보았다. 수색여행을 가는 길, 배가 침몰하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에 농담을 하며 장난치는 모습이 큰 충격이었다. 유가족분들이 아직까지 길바닥에서 싸우고 계신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방치해 그 많은 학생들을 죽여 놓고 왠지 하늘나라에서까지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 화가 났다. 정말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서이현(진주고2)기자

"이번 진도 팽목항 방문하면서 내가 부끄러웠다. 분명 잊으면 안 되는 사건이고 관심을 가져야 했지만 솔직히 그렇지 못했다. 기억의 숲, 썰렁하고 우리의 세월호에 대한 무관심을 표현하듯 황폐한 숲이었다. 관리도 엉망이고 사람들의 방문도 없는지 갑초들이 무성해 안타까웠다. 팽목 기억관의 외관은 그 열악함에 놀랐지만 안쪽으로 들어서는 순간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물건들, 사진, 글귀들이 있었고 마음이 너무 아팠고 잊고 있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는 확실한 방법은 끊임없는 관심과 숨김없는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유가족분들의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대통령은 왜 약속을 안 지키는지 머리가 복잡했다"

김수원(진양고1)기자

"진도에 다녀오며 2014년의 내가 부끄러워졌다. 그 당시의 난 세월호 참사 때문에 못가게 된 야영을 원망하고 그 엄청난 비극보다 아주 개인적인 나의 기분밖에 생각 안했기 때문이다. 기억함이 부끄럽고 죄송했다. 팽목기억관 안에 올려져있는 희생자 학생들의 이름 하나하나로 만든 노래소리는 슬펐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정부는 정녕 세월호를 감추고 싶은 것일까? 6년이 넘은 지금까지 유가족들이 차가운 팽목항에 남아계시는 것을 알기는 할까? 바다를 보며 유가족분들이 사랑하는 아들 딸을 편히 보내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빌었다."

하서준(진주고2)기자

"팽목항 방파제에서 사고가 난 바다를 바라보니 마음이 이상했다. 방파제 난간에서 동대까지 난간에는 수많은 노란 리본들이 묶여져 있었다. 그런데 리본들이 대부분 낡아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꺼져가는 관심 같았다. 어떻게 6년이 지났는데 변한 것이 없다는 유가족분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이제 공소시효가 6개월도 남지 않았으니 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대통령은 왜 약속을 안 지키는지 머리가 복잡했다. 모두 반성하고 세월호의 진상을 날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나도 이제 세월호 뉴스는 챙겨봐야겠다."

세월호 국민청원 10만 달성 "이제 국회가 응답하라"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기록물 공개하라"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와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을 요청하는 국회 청원이 성립되자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국민연대(4·16연대), 세월호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은 11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10만명이 청원한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월6일 '4.16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청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청원', 2개의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청원에는 세월호참사 직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전까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을 국회 결의로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청원

은 오는 12월 만료되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 인력을 확충하도록 했다. 사참위에 수사권인 사법경찰관을 부여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청원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난 10월 31일 10만명 동의를 얻어내며 조기완료됐고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대통령 기록물 공개 청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회적참사특별법 청원은 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이들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다"며 "한 마음으로 협력해 반드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세월호참사는 국가가 국민을 구하지 않은 국가 범죄"라며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지 않고서는 국민이 주안답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세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참사 7주기를 5개월 앞둔 지금, 10만명이 보여준 열망과 행동의 자를 국회와 정부는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며 사참위가 국회에 요구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별검사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통편집국]

[기획] 생리대는 우리 모두의 권리다

생리대, 당당하게 요구할 인간의 기본권

가임 여성에게서 배란이 시작되면, 여성의 몸은 임신할 준비하기 위해서 자궁벽이 두터워지는 등의 신체변화가 생긴다. 수정이 되면 임신이 되지만, 만약 수정이 되지 않고 난자가 죽게 되면, 임신할 준비하던 몸은 다시 다음 배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터워졌던 자궁벽을 허물어버리는데, 이 허물어진 자궁벽 등이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생리'다. 배란된 난자가 수정되지 못하고 죽으면 보통 2주후에 생리가 시작된다고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달 어김없이 생리통에 시달리고 귀찮게 생리대 착용해야 한다. 하루 아픔에 끝나지도 않고 차이가 있지만 일주일 넘게 고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상생활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통증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뒤따른다. 더구나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과 사회 생활속에서 받게 되는 어려움 또한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성의 생리는 인류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성이 임신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인류가 유지 될 수 있었는가 말이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생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왜냐면 계속적인 종족번식을 위해 생리할 기회를 주지 않고 암컷은 임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는 자신

들의 가족제도와 사회제도를 만들면서 여성들이 생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즉, 우리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이 여성의 생리를 초래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생리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 휴지로 버티는 소녀들이 뉴스를 장식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생리대를 사야만 하는 우리나라다. 어느 지방의회에서는 '생리대'라는 말이 회의장에서 쓰기 적절치 못한 말이라 '위생대'라고 써야 한다는 얘기를 할 정도의 미개한 의식 수준을 자랑한다. 급기야 2016년 7월부터 지급되는 재난현장 물품 목록에서 생리대가 위생상 좋지 못하고 개인별 취향이 달라 제외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내려진다.

생리는 여성들이 주장해야 할 권리다. 또한 남성들이 보장하고 보호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 왜 여성이 생리대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것일까? 극단적인 말 같지만 자신이 원해서 생



리를 하는 여성은 없다. 생리 그 자체가 여성이 인류를 보존하고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여성들에게 필수적인 생리대조차 돈벌이로 이용되어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아먹는 나라, 이런 아니지 않은가?

여성들 삶의 일부인 생리에 대해 아마도 남성들은 잘 모른다. 생리를 왜 하는지? 생리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리에 동반되는 여성들의 심리와 고통이 어떤 것인지. 관심이 없을뿐더러 가르쳐주지도 않는다. 또한 생리대가 왜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불편

이 있는지. 그것 역시 잘 모른다. 잘 안다면, 우리 사회가 생리를 불결하다는 이미지로 숨겨야 할 것으로 인식할까? 어떻게 돈이 없어서 생리대를 쓰지 못하고, 오르기만 하는 생리대 가격을 쳐다만 보고 있었을까?

생리대는 여성들이 당당히 주장해야 할 인간의 기본권이다. 어쩌면 국가가 여성의 인권차원에서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여성이라는 이유로 매달 3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가? 오히려 그만큼을 감사의 의미를 담은 생리수당으로 받아도 시원찮을 것을 말이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 간담회]

선택할 수 없기에 기본권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이영실의원이 청소년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필통을 찾았다. 이영실의원은 경남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보편지급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조례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필통기자단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이영실의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월경은 여성이 인간으로 태어나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생리현상으로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이 매달 수일간 겪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또는 '마법'으로 불리며 비밀스럽고 특수한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생리는 특수상황 또는 개인 영역의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생리는 건강권뿐만 아니라 학습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에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을 해당 연령 전 범위의 여성청소년이 아닌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 11세에서 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달에 1만500원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기준 신청률은 68.6% 수준입니다. 경남 역시 청소년 복지를 위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8,133

명의 대상자 중 신청자 수는 6,999명인 실정입니다. 약 1,100명이 신청을 하지 않거나 혹은 신청하지 못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것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무상 생리대 지급 조례가 통과된 후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보편 복지로 확대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매달 겪어야만 하는 생리는 일상입니다. 생리대를 기호품이나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으로 보고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보편적 상식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리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 늦지 않았습니. 우리 경상남도의 인권지수를 나타내는 큰 지표가 될 여성청소년의 기본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생리대 보편지급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되지 않으니 생리 또한 여성만의 문제로 인식해 버립니다.
(곽성민-전주교2)

생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여성들에게만 그 모든 책임을 지우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교육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생리뿐 아니라 성과 관련된 학교에서의 기본적인



아직도 우리 생리를 한다고 말하는 것, 생리대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생리를 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하고 생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없습니다. 생리대 무상지급도 좋지만 생리에 대한 보수적인 생각과 더불어 기초적인 지식과 올바른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윤지-삼현여교2)



누나가 책상위에 생리대를 둔 것을 본 어머니가 '넌 조심성 없게.. 부끄럽게 이런걸 아무데나 두 나'며 야단을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상했고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냥 '생리대' 일뿐인데... 생필품과 다를 바 없는 '생리대'를 왜 부끄러워하고 들키면 혼나야 하는 물건으로 다들 생각하는가 조금 헛갈렸습니다.
(이영광-진주기공2)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생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생리대가 아 우리 좋아도 안하는 것보다 불편하고 힘듭니다. 여성들은 그렇게 싫은 것을 일생동안 사비로 감당해야합니다. 이런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예은-삼현여교2)



청소년 생리대 무상지급이 바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시된다면 어른들의 의견보다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담겨서 청소년들이 정말 편리하고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정예림-전주여교2)

서울 구로구,
중고생 생리대
무상지원
1인당 월 30개까지



서울 구로구가 관내 모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무상 지원한다. 구로구는 올해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생리대 보관함을 설치하고,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부분 학교가 보건실에 생리대를 비치했다. 급하게 생리대가 필요한 학생들은 보건실을 방문해 이용대장을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보건실을 찾아야 한다는 불편함과 함께 수칙심, 낙인 효과로 인해 이용률이 낮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접근성, 편리성, 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해 화장실에 생리대 보관함을 설치하기로 했다. 생리대 보관함에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생리대 3종을 비치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구로구는 매달 총 9만7000여개 분량의 생리대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여성청소년이면 누구나 매달 30개까지 자유롭게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다.

[필통편집국]

[필통실험실] 코로나19 방역의 기본인 체온 측정기 점검

얼굴인식부터 열상카메라, 귀체온계까지 모든 체온계를 동시에 측정해 보면 어떤 결과?

진주시청에는 얼굴인식 체온 측정기, 열화상측정기가 비치되어 있어 비접촉식 체온계와 귀체온계를 들고 직접 시청으로 가서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은 남성과 여성 각 한 사람이 5분 정

도의 차이를 두고 반복해서 각 기기의 체온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얼굴인식 체온계 1, 2, 비접촉 체온계, 열화상체온계, 귀체온계 순으로 각자의 체온을 측정해 보았다.

진주시청과 J여중에서 모든 체온계를 측정

결과는 정리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각 체온계 기기의 반복 체크 시 측정 체온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즉 환경이 비슷한 상황에서 모든 체온계는 일정한 측정 성능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동일한 환경에서 체온을 측정했을 때 측정기기별로 분명 측정치의 차이가 있다. 측정방법이나 기기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0.5C 정도의 차이는 민감한 시기에 의미를 둘 수 있는 측정치일 수 있다. 하지만 실험을 시작하며 측정 회차마다, 측정기기마다 측정치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기록을 종합해 보았을 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로 학교마다 설치된 열화상카메라도 확인해 보기 위해 J여중을 찾았다. 학교에서의 체온 측정은 다른 어느곳 보다 중요하니 긴장된 마음으로 측정에 임했다. 결과는 학교에 비치된 열화상 체온계와 비접촉, 귀체온계 모두 거의 비슷한 측정치를 나타내어 혹시나 하는 걱정을 불식시켜 주었다.

[진주시청 체온계 측정 실험]

구분	남			여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얼굴인식	36.5	36.3	36.2	36.3	36.3	36.2
얼굴인식2	36.4	36.4	36.5	36.2	36.4	36.3
비접촉	36.0	36.6	36.5	36.2	36.2	36.0
열화상	36.0	35.8	35.4	35.4	35.4	35.3
귀체온계	36.5	36.5	36.3	36.9	36.5	36.5



[J여중 체온계 측정실험]

구분	남		여	
	1회	2회	1회	2회
J여중 열화상	36.3	36.4	36.5	36.6
비접촉	36.2	36.5	36.5	36.5
귀체온계	36.5	36.7	36.5	36.7



코로나19 감염증에서 발열 기준은 왜 37.5도일까?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 사례 정의(2020.4.2 최신)에서 의사환자(의심되는 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다른 나라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발열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대략 37.8도나 38도를 생각하는 데, 왜 코로나19 감염증은 37.5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을까요?

1)코로나19 환자 중 37.3~37.9도인 경우가 20% 정도 있으므로 이를 커버하기 위해 체온 기준 하향의 필요성 때문.
2)성인의 기초체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예전 발열 기준 자체를 낮게 수정할 필요성 제기.

하지만, 그렇다고 발열 기준 자체를 낮추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증 맞춤형 발열 정의라 생각하고, 여전히 다른 질환은 기존의 정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어떤 체온계가 기준인가? 겨드랑이 체온 37.3도=구강 37.5도=직장/귀체온계 37.8도가 발열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례 정의는 겨드랑이, 구강 체온계(내과학 교과서인 해리슨에는 구강 체온계로 오전 37.3, 오후 37.9도 이상이 발열)가 아니라 널리 쓰이는 귀체온계가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마 등의 비접촉 체온계는 부위마다 변동이 크므로, 많은 사람들을 1차 측정할 때 사용하는 정도의 의미만 가집니다. 여기서 높게 측정되면 귀체온계로 확인합니다. 여기서도 높게 측정되면 5~10분 정도 후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그래도 기준에 들어간다면 일단 열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취재/ 정보경(진주중앙고1)기자]

[틴틴이슈] 중학생도 탈 수 있는 킥보드 합법화 논란

킥보드 타고 등하교! 이용연령 13세 하향 반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를 만 13세로 낮춘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교원단체가 재개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등하교길에 전동킥보드를 타는 학생이 늘면서 사고가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월9일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학생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교육계 의견 수렴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정돼 우려스럽다”며 “정부와 국회는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법 재개정과 제도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문제 삼은 법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을 앞둔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기존에 만 16세로 제한했던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을 13세로 낮췄다. 고등학교 이상만 탈 수 있었던 전동킥보드를 곧 중학생도 탈 수 있다는 얘기다.

원동기 면허도 필요 없어진다. 기존에는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가 필요했다. 대다수 청소년은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이용을 사실상 어렵게 해왔다. 안전모 착용 규정은 있지만, 벌칙 조항이 삭제되면서 실효성이 낮아졌다.

정부는 급성장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전동킥보드 이용은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3~8월 12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의 총 이용 건수는 1519만건으로 지난해(7~12월) 이용 건수 약 350만건보다 4배 이상 늘었다.

교육계에서는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이용에 크게 늘어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교사들은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등하교길에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로 무면허 곡에 주행하는 일이 많아서 골머리라면

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사고가 잦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사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 11건이었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지난해 447건으로 약 40배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고교생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학부모도 우려... 면허제·보험가입 의무화 필요

학부모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학부모들은 어른이 타고 위험해 보이는 전동킥보드를 아이가 타는 건 막아야 한다는 반대 입장의 목소리가 높다.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모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전동킥보드 면허제 도입·보험가입 의무화·보호장구 착용 및 벌칙조항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교원단체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등하교를 금지하는 학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법률을 다시 개정해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어나고 있다.

[취재/ 노현승(동명고1), 윤윤희(삼현여고2) 기자]

[맷캉년맷반]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2학년 4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4반!! 사대부고 핵인싸, 브레인 집합소



수업시간이나 쉬는시간 할 것 없이 언제나 밝고 적극적인 반이 있을 수 있을까?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에서 단언컨대 언제나 1등은 2학년 4반 일 것이다. 어떤 수업에서나 발표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넘쳐나고 친구들의 호응 리액션도 방청객 급. 핵인싸 친구들만 모여 있어 언제나 북적북적 활기 가득한 반이다.

공부와는 담 쌓은 듯한 분위기지만 4반은 전교 1등을 포함해 학생회 부장 1명, 동아리 부장이 무려 5명, 차장이 1명 있는 등 사대부고의 브레인들이 대거 포진 되어 있는 반이다. 선택과목이 많이 달라서 함께 있는 시간이 적어 아쉽지만 특유 친밀감과 친화력으로 어색한 친구 하나 없는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 반이다.

우리반만의 이야기

1학기 코로나로 패닉상태였을 때, 아직 온라인 등교조차 하기 전 담임 선생님께서는 친구들이 반에 익숙해지도록 우리 반만의 특별한 아침 조례를 하셨다. 교실 앞에 있는 그림의 제목 맞추기, 사진 속 위치 맞추기 같은 질문으로 반 친구들의 아침잠을 깨워주셨다.



교실 뒤에 게시판이 생겼다. 아무것도 없어 밋밋했는데 반장이 굴을 들고 온 어느 날 게시판에 굴이 생겼다.^^ 굴의 나비효과랄까? 옆에 커피믹스도 생겼다. 현대예술의 전 시장이 된 게시판은 조례시간 선생님께 발견되고 사진으로 반 남겨졌다.

식상한 급훈 저리 갓!

우리반 학급비전은 반 친구들이 각자 하나씩 의견을 내고 그중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다. 형준이가 제시한 급훈 '인생에서 가장 빠른 시간은 지금이다'가 선정되어 칠판 위를 장식하고 있다.



주목하시라! 4반 대표 얼굴들



김연경:창체 동아리 밴드부에서 차장과 보컬을 맡고, 자율동아리에서도 노래를 하는 친구다. 그러나 선택과목에서는 미술을 한다. 반에서 키가 제일 요정스럽다. 반 친구들에게 매일 귀여워워를 외치고 있어 가끔 당황스럽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귀엽다고 하면, 친구들이 '알아'를 외치게 되었다. 연경이 파셀로 우리반 친구들이 귀여운 건 팩트라고 한다. (소민이와 함께 시집갈 남자를 구하는 중인데 안타깝게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지 모른다. 혹시 태어났음 여기로 연락을 바란다. 010 257...)



남근호:믿음직스러운 부반장이다. 반장이 가끔 정신 놓고 꾸물대고 있으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주고 다시 자기 공부를 하는 아주 멋진 친구다. 부반장뿐 아니라 수학동아리의 부장으로도 열심히 활동 하고 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공부하며 친구들이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도와주는 친구다. 9월 모의고사에서 재현이와 점수대기를 했다. 1문제 차이로 이겼다.



박소희:학생회 경영기획부 부장이다. 유일한 학생회 임원이다. 소희는 공부 잘한다. 매년 '공부 못한다', '망했다' 외치지 않는 친구로 '노'는 친구다. 요즘은 현영이에게 백백이라고 불리며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영어를 좋아해 친구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한다. 영어 필기체 글씨도 너무 이쁘게 적는다. 애기를 하다가 갑자기 영어 단어를 물어 친구들을 자주 당황스럽게 한다. 소희는 공부만큼 한서네 집을 좋아한다. 소희네 집과 한서의 집은 굉장히 먼데 단골 손님이다. 방영록을 제일 많이 썼다.



배재현:필통 기자다. 교탁 바로 앞에 자리다. 거기서 가끔 신기한 질문을 던지곤 하는데 뒤에서 보고 있으면 신박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해서 웃는다. 우리반은 1학기에는 한문을 하고 2학기에 일본어를 하는데 1학기부터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해 일러화화를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일본 애니를 200편 넘게 봐서 그렇다는 정현군의 증언이 있다. 온라인 클래스에서 어색한 처음부터도 항상 앞서서 발표를 하는 친구다. 지금은 현영이가 운영하는 스터디 그룹활동을 하며 현영이의 지도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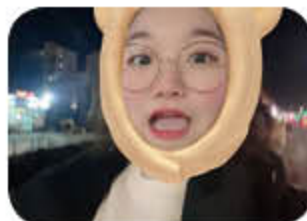
유영현:소희 전에 학생회에서 경영기획부 차장을 맡았다. 인디 음악을 좋아하며 특히 잔디비와 핵오, 카타가튼의 노래만으로도 음악 플레이 리스트를 채울 정도다. 반에서 몇 없는 문과에서 이과로 넘어온 친구다. 다방면으로 아는 것이 많다. 공부 외에도 아이돌이면 아이돌, 랩이면 랩, 영화면 영화, 게임이면 게임, 모든 분야에서 친구들에게 즉문즉설을 해 준다. 그 중 특히 해외의 축구에 대해 광창한 관심이 있고 축구 빼면 시체다. 유영현하면 친구일 정도로 축구를 많이 좋아한다.



유한서:오 권력자인 반장이다. 언제나 시끄러운 반이다 보니 항상 '애들아, 조용히 하자'를 입에 달고 산다. 반장이라 하면 추진력 좋고, 빠릿빠릿한 이미지지만 한서는 굉장히 느리고 최대한 일을 미룬다. 되도록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 노력하는 특이 스타일. 반장뿐 아니라 의학 동아리의 부장이기도 하다. 자기가 만든 동아리라 애정이 각별하다. 성격이 활발하면서도 화가 많다. 마음을 다스리며 유튜브에서 명상의 말씀을 듣고 있다. 키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171로 4반 여자 키 평균을 흔자 먹살 잡고 캐리 한다.



이선우:재현이, 현영이와 함께 반에서 발표를 많이 하는 친구 중 한명이다. 선생님의 '발표할 사람?' 말이 끝남과 동시에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발표를 자원하는 친구다. 반장이 느릿느릿 일처리 하고 있을 때마다 부반장과 함께 5g 속도로 모든 일에 일사천리 도움을 준다. 낮을 가려서 그런지 말을 많이 안하는 편이다. 가끔 카톡을 할 때 읽고 답을 안 해줄 때도 있긴 하지만 자신이 필요할 때나 공부에 관해선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는 다정한 친구다.



이소민:반장을 포함 반 여자 친구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원예부 부장, 하는 행동 마다 웃기고 입담도 대단하다. 수업시간에도 통통튀는 모습,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이 사랑스럽다. 소민이가 여자친구들한테 사랑받는 이유는 근거 없는 허세 때문. 본인파설로 반 주먹 일팔이라고 하고 유연성 23팔이라고 하는데, 주먹 일팔은 근육량이 없어 못 밀겠고 유연성은 최근 체육시간 스트레칭에서 증명했다.(체고 준비했다가 부상으로 인문계 은 착한다.) 놀랍게도 소민이의 꿈은 구운통의 양소유보다 많은 9명의 쌤. 남친을 거느리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소민이는 여자에게 더 인기가 많다.(소민이는 이 세상을 주름 잡고 같이 모험을 떠날 친구를 구한다고 한다. 010-85음음음...)



이혜진:거제에서 전학 온 친구다. 처음엔 낯을 많이 가리지만 친해지면 장난도 많이 치고 활발해진다. 뽀빠하는 소리도 종종 듣는다. 마린에 환장하지만 마요네즈와 머스타드엔 질색을 한다. 하룻길에 있는 비박 분수를 좋아한다. 짬뽕해서 만지지는 않지만 인스타 스토리에 항상 올리는 친구다. (지금은 질렸다고)



정현영:사대부고 전교 1등이자 오목이다. 공부면 공부, 음악이면 음악, 항상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파다.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의대교수가 꿈인 친구다.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며 친구들 공부를 시킨다. 뛰어난 성적에도 점심을 안 먹고 늘 수학실에서 공부를 한다. 믿기지 않지만 공부만큼 노래도 정말 잘 부른다. 음악시간 노래방으로 한번 씩 불러 줄 때면 김탄사가 절로 난다. 구독자 16명인 유튜브가 있는데 예전엔 'tears'가 있었는데 지금은 무반주로 부른 일본곡 '내일의 밤하늘 초계반'이 업로드 되어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현재는 '네즈코'와 '아카메'를 제일 좋아한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 1학년때부터 일본어 선생님께 찾아가 늘 질문을 한다.

신청 바랍니다

카톡ID : feelong1318

이메일 : feelong1318@daum.net

①신청인, ②신청학교, ③신청반, ④연락처, ⑤신청이유, ⑥구성내용요약 설명을 보내주세요.

[취재/ 배재현(사대부고2)기자]

친구들의 간단 설문?

이름	이상형	MBTI 유형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인생 영화/드라마
권도현	과학 잘하는 여자♡	놀랐재	권도현이다	아마존의 눈물
김도윤	착한사람	열심히 살자	착한사람	-
김보겸	한소희보다 예쁜 여자	한소희 보고싶다	전학갔어요	-
김연경	소민이/나를 좋아하는 사람	@dusrud_00./DM 조아해요	나는 시크 도도 섹시할, 그 자체다.	수상한 파트너, 주토피아
김형준	성격 맞는 여자	항상 힘내자	열심히 살고 싶은	응답하라 1994
남근호	까칠하지 않은 여자	-	항상 성실한 사람이다.	-
박소희	웃는게 이쁜 사람	바쁘게 살자	히히히히히	반지의 제왕
박은우	말 많고 재미있는 사람	힘차게 살자	조용한 사람	굿 플레이스
박해진	불링 잘 치는 사람	메팅	멋쟁이	신세계
배재현	아이유	공부해라 배재현	시크한사람이다	낭만닥터 김사부
백인성	축구 같이 봐주는 여자	민트초코 ♥	나다	-
유영현	밥 잘 먹는 여자	민초 먹고 싶다	^ ^ ^	클래식
유한서	K리그 보는 남자	@eunwoodukgu_jalla /은우덕꾸랄라	사반장통부	술기로온 김병생활
윤정우	키 170 이상.누나 같은 사람	-	-	리틀 포레스트
이민경	부승관	하위	부승관 과몰입녀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선우	눈이 큰 사람.예외 바른 사람	별은 바라보는 사람에게 빛을 준다.	한결같은 사람이다.	날씨의 아이
이소민	남중, 남고 다니는 사람.	@somin18_/다해해 자기들	나는 카리스마, 시크, 도도를 보유한 사람이다.	소희 일상이 담겨있는 cctv
이현수	아이유 사랑해	아이유 사랑해	아이유 사랑해	아이유 나온 영화
이혜진	연하x	ㅎ, ㅎ	느림보	-
정재민	-	-	-	-
정현영	착한여자	공부해라 배재현	성실한 사람이다	-
조태준	노래 잘하는 여자	임채정 뒤질래	임채정보다 똑똑한 사람	도개비
조현준	공감 잘해주는 사람	안녕	나는 좀 피곤한 사람	도개비

[필통 뮤직차트] 실연당했을 때, 딱 어울리는 노래

슬픔을 노래로 달랜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실연을 당했을 때나 연인과 헤어졌을 때에 슬픔을 잊기 위해서 노래로 마음을 위로할 때가 있었을 것이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서 '실연' 폴더에 넣어두고 싶은 노래는 어떤 곡인가? 학생들의 선택이 궁금하다. 남, 여 고등학생 30명에게 물었다.

남녀불문 악동뮤지션, 어반자카파 PLAY

실연당했을 때 듣는 노래의 1위는 남, 여학생 모두 악동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를 꼽았다. 또한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역시 남, 여학생 모두에게서 지지를 받는 실연송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이 두 곡 외에도 윤건의 '너도 그냥 날 놓아주면 돼', 신예영의 '우리 왜 헤어져야 해', 송하예의 '니 소식'을 많이 듣는다고 했고 여학생은 빅마마의 '체념'도 악동뮤지션만큼이나 실연하면 부르게 되는 노래로 선택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노래들이 추천을 받았다. '오늘 가지마-벤'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버즈' '빌런-스텔라 장' '그때가 좋았어-케이시' '그대가 들어왔으면-곽진언' '내 차레-박원' 'perfect-10cm' 'Time Lapse-태연' '미친소리-이예준' '종이-윤종신' '광화문에서-규현' 'gone-저스디스' '코코밥-엑소' 'say it ain't

so-Weezer' 'Jump to the light-The Kox' '사랑했나봐-윤도현' '오늘은 가지마-벤'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한동근' 등이 있었다.

순위	남학생	여학생
1위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악동뮤지션(8)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악동뮤지션(7)
2위	너도 그냥 날 놓아주면 돼-윤건 / 우리 왜 헤어져야 해-신예영 (5)	체념-빅마마 (6)
3위	널 사랑하지 않아-어반자카파 / 니소식-송하예 (4)	널 사랑하지 않아-어반자카파 (4)



[취재/ 정예림(진주여고2)기자]

[고민상담소] 저의 고민을 들어 주세요~

미용실에서 고민, 약속시간도 못 잡아요! 저의 고민은 결정 장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의 추천으로 저의 고민을 털어 놓고 같이 이야기 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저의 가장 큰 고민은 결정 장애입니다. 별거 아닌 것에도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선택을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 머리를 자르러 친구랑 같이 미용실에 갔는데, 그때 저는 A스타일로 자르려 했는데 친구가 B스타일로 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B스타일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어울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A스타일이 좋은데 친구가 계속 B스타일로 해보라고 하니 까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고민만 하다가 결국 머리를 못 자르고 나왔어요."

"친구들과 약속을 할 때도 시간을 잘 정하지 못해요. 친구랑 놀러 갈 때 다 같이 놓고 싶어 서로 일정을 확인하고 맞는 시간을 찾습니다. 막상 그 시간대를 생각해보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시간대를 찾다가 결국 약속이 무산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COUNSEL 1 실제로 저도 결정 장애가 있는 편인데 저는 그럴 때면 우선순위를 정한다던가, 메모지에 써놓고 꽃잎 점 같은 무작위 플렛을 해서 선택을 해요. 후회 할 때도 있지만 선택하지 못해서 계속 고민 할 바에 무책임하게라도 결정을 하고 빨리 후회는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나온 결과물이 조금 좋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이미 결정을 내가 지었고 이미 지나간 일이니 후회가 많이 되진 않아요.

솔직히 말을 하자면 신중한 것과 너무 고민이 많은 것은 거의 동일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을 내리면 신중한 것이지만 사소한 분야까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무턱대고 선택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진 않을까요? 한번쯤 귀를 닫고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결정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COUNSEL 2 선택이라는 건 원래 2가지의 길을 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와 같은 문제인데, 결국 여기서 결정을 짓는 것은 어디로 가야 더 이득이 될지, 혹은 손해가 될지라는 것입니다. 사회 시간에 한번 들어 본 기회비용이란 말을 떠올려 본다면 결국 우리는 다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포기해버리면 다른 하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어떤 것을 선택하든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걸 선택해 버리면 다른 하나를 가졌을 때의 느낌을 정확히 알 수 없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결국 그 자신이 가진 것의 느낌을 알고 그 가지지 못한 느낌은 모르니까 가지지 못한 그것의 그 느낌의 가치를 낮게 잡아버린다면 결국 당신은 옳은 선택을 한 것이겠죠. 모든 것들은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COUNSEL 3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제일 처음 생각한 것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시험을 칠 때도 처음에 생각한 번호가 정답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해요. 결론은 처음에 끌리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 같습니다!

COUNSEL 4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양자택일의 순간이 와요. 그럴 땐 저의 경우 가장 근처의 세 사람, 만약 세 사람이 없다면 한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 후엔 망설임 없이 그 의견을 따르죠. 즉, 민주주의적으로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겁니다!^^



COUNSEL 5 결정장애는 우리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긴 것 같아요. 결정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이웨이'가 필요하죠. 정말 자신만의 길을 따라가기로 한다면 다 잘 해결될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COUNSEL 6 제 생각에는 자신의 결정에 좀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는 고민은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늘 한 가지 선택지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죠. 낮에 만나면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즐겁게 얘기할 수 있고, 오후에 만나면 카페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각각의 장점이 있고 각각의 아쉬운 점이 있는 법이니까요. 중요한 건 선택을 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결정할 때는 좀 더 과감해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COUNSEL 7 결정장애가 있으면 정말 힘들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전 그럴 땐 친구와 가위, 바위, 보를 해요. 예를 들어 짬뽕과 짜장면 중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나는 짜장면, 친구는 짬뽕이라고 정한 후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정한 메뉴를 먹는 거죠! 단순한 해결책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필통 고민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얘기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일상 속 다양한 고민들을 털어 놓고 같은 또래의 친구들의 조언을 들어 봅니다. 아주 사소한 고민도 좋습니다. 필통 홈페이지나 카톡(feeltong1318)으로 자신의 고민을 보내주세요.(익명으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필통편집국]

[맏칸년맏반-신청] 진주제일여고 1학년5반편

국.사.한 일등은 우리반이 접수했다 문과체질 집합소 1학년5반을 소개합니다!



1학기 내내 국어, 사회, 한국사 반 평균 1위를 찍은 인문 실력자들이 가득한 1학년 5반이다. 2학기에도 한국사 1등을 하며 한국사 선생님의 무한 총애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인문계열 과목의 좋은 성적에 비해 정작 반에는 이과 계열의 학생들이 더 많다고 한다.



우리 담임 방주영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자 1학년 5반 담임 선생님입니다. 꽃과 같은 미모, 꽃밭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반 아이들이 어느 것이 진짜 꽃인지 헷갈려 했다는... 나른하고 조근조근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며 너무 착하셔서 제대로 화를 내신 걸 본 적이 없다. 선생님 사랑해요..♥

우리반을 해시태그로 표현?

#프로먹방러 #벌레형오자들 #전기파라체 #없인 #못살아 #인문 #미술선생님의반 #미술에 #다들 #은근한 #자부심보유 #감성적 #예술적 #다른반 #선생님들파셜 #말제일안들을 #노래 실력자 #상당한수 #보유중 #에너지과다 #잠탱이들

우리반의 이상형 & 하고 싶은 말

이름	하고 싶은 말	나는 이런 남자
강레연	기본적인 맞춤법 잘 지키는 사람	@ryeyeonnnnnnn
구은아	무쌍에 비올 좋은 사람	x
권민지	식	미
김란아	키 크고 공부 잘하고 변함없는 사람	@raxxany_19
김민아	안보현 밖에 안보현	@amen_jejus
김소민	웃을 때 보조개 들어가는 사람	@somyomiii
김지현	키 크고 착한 사람	@ji_hyen33
김현서	안경 잘 어울리는 모범생	x
김현영	귀 예쁜 사람	@yeong10111
손여림	성격 좋은 착한 남자	나름이 좋아
심주아	날 항상 즐겁게 해 주는 사람	x
윤영서	안경	x
이경주	키 크고 재미있는 사람	@fi_o212
이윤경	목소리가 좋고 재미있는 사람	x
이정민	안경!!손!!사람 (팔테 극혐)	@gnu1_12277
임지영	웃을 때 보조개가 있는 사람	x
전현진	데보이즈 영훈	#데비구합 @hjin.17
정시원	이도현&김범 달은 남자	@wjdxldnx
정유정	웃을 때 귀여운 사람	x
정지은	안재홍 달고 순수한 사람	@jieun2078
제유리	ㅎㅎㅎㅈㅈㅈㅈㅈㅈ	해리 바보 껌은 명칭
최혜연	비현실적인 사람이나 2D	까
하수희	까맣고 말 많은 사람	@sook_1i_
하예린	ㅈㅈㅇ♥	알이,짖지,1번방 연락좀 해!



[맏칸년맏반 신청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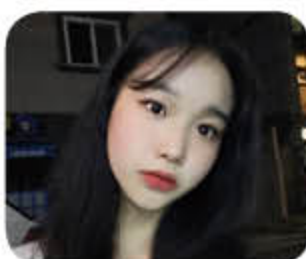
우리 반을 필통을 통해 알리고 자랑하고 싶다면 신청해 보세요.

아래 내용을 작성해 필통 공식 메일 feelong1318@daum.net 이나 카카오톡 아이디 feelong1318로 보내 주세요. 남, 여학교 등을 고려해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결정된 반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①신청 반 ②신청자, 연락처 ③신청 이유 ④지면을 어떤 내용으로 꾸밀지 간략한 계획

※ 맏칸년맏반의 구성 내용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신청반이 자유롭게 내용을 기획해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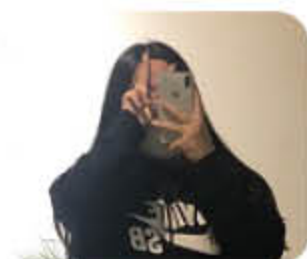
우리반 인물사건



이경주:연과 잠시 붙어다니더니 인성 파탄자의 길을 함께 걷고 있다. 버스가 제일 많은 공단광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지만 항상 버스가 없다는 핑계로 지각을 한다. 생김새는 귀염뽀짝하게 생겼으며 얼굴형이 이쁘고 아기자기하다.



강레연:우리반의 단비1을 알고 있다. 목청이 커서 마스크가 확성기 기능이 있지는 않은지 의심받고 있다. 체육 부장으로 태권도 4단을 보유, 체대 입시를 목표로 두고 있다. 약간의 분노 조절장애와 다혈질을 포함하고 있고 정시원의 과자 훔치기 담당이다.



김지현:손과 발, 키를 포함한 모든 게 아담한 귀여운 포포미다. 심각한 마라탕 중독자로 마라탕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지 않으면 호흡곤란이 온다. 경상대 근처에서 항상 새벽 2시까지 출몰한다는 프로 외출러, 정작 반 아이들의 외출을 단속하는 무서운 여자다.



김민아:1년째 5반의 반장을 맡고 있다. 공부도 잘하며 청암반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반의 기동 같은 든든한 존재. 완벽해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엄청난 드라마광이고 수업시간에 다리를 떨면서 졸다가 한 번씩 미끄러져서 벌떡벌떡 일어나곤 한다.



김현영:아메리카노에 중독된 카페인 러버다. 우리 반 팔씨를 절대강자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팔씨를 부심을 부리던 제유리를 1초만에 넘겨 참교육을 시전. 걸모습과 달리 소심하고 마음이 여려며 광장한 노래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손여림:동종 댄스부 리더의 과거 이력, 반에서 유일하게 11자 복근을 소유하고 있다. 춤 선이 청아할 땀아 해 '제일 청하' 라는 별명. 운동을 좋아해 '여자 김종국' 이라는 제 2의 별명도 있다. 고양이와 강아지를 10마리 남짓 기르는 동물 애호가다.



김현서:낮가림이 없고 학기 초에 제일 말이 많았다. 반 아이들에게 있어서 터치가 과감하며 우리반이라면 누구나 아는 원진뽀 1호 팬이다. 춤을 좋아하지만 몸치, 158이라는 아담한 키에 비해 비율이 좋아 164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 받는다.



김란아:우리 반 단비2를 알고 있다. 외모, 성격, 말투까지 단비 그 자체로 귀염뽀만 상당한 육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험한 입과는 달리 공부를 잘 하며 어렸을 적 '누가 누가 잘하나' 라는 TV프로에서 노래로 상을 받았다. 지금도 유튜브로 검색해 흡족한 미소로 본다는...



정시원:과자공장의 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자 부지다. 학교에 올 때 과자 몇 박스를 들고 오는데 행동대장 강레연을 중심으로 다 헛기곤 한다. 인스타에서 먹스타를 운영 중이지만 피드에는 정작 일통 맥킹정 사진만 가득. PPT에 수제 이모티콘을 넣어 놀림을 받고 있다.



제유리:반 대표 모델이지만 대표 잠만보다. 정지은과 배드민턴을 즐겨하며 이기는 날엔 하루종일 싱글벙글 웃는다. 잠을 자기 시작하면 누가 깨워도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면 이미 학교 수업 끝. 포켓볼을 치면 공들을 통통 튀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정지은:이국적인 이쁘장한 외모로 러시아 혼혈이라는 오해를 받곤 했다. 덧붙여 공부까지 잘 하는 뇌섹녀다. 고등학교와는 안 어울리는 초딩 맏딸이 입맛으로 진라면도 순한 맛만 먹는다라는 소문이다. 웃을 때 뺨뺨 터지는 리액션이 매력적이고 셀카를 못 찍는 편이다.



김소민:처음 보면 시크한 매력, 입만 열면 껌은 귀여운 뽀뽀 같은 실물강제다. 우리 반 폰 걸기 담당인데 폰 가방을 드는 것이 버거워 항상 45도 각도로 기울여져서 걷는다. 반 학생들에게 최초로 곱창 밴드를 전파시킨 장본인이며 립밤 없이 살지 못한다.



권민지:발로 모의고사를 쳐도 국어는 무조건 1등급이 나올 정도로 국어실력이 유별나다.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연예인 포즈, 혼혈렌즈가 잘 어울리는 미녀다. 출신출원 손여림의 옆에서 보고 배운 찜뽀로 은근 출예 소질이 있고 5반 대표 아이들을 알고 있다.



하수희:항상 머리에 왕 그루프를 달고 있다. 작은 그루프에는 만족하지 못하며 수시로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어 일명 거울공주라고 불린다. 상식샘을 좋아하는 공식 1호팬이나 수줍음이 많아 제대로 인사하면 못하는 순정녀다.



윤영서:퀵 와사비를 톡 닦았다. 실물은 더욱 똑같이 생겼으나 정작 자신은 부정하고 있다. 아담한 키와 달리 팔씨를 대단한 재능이 있어 숨겨진 천하장사이다. 100kg까지 업을 수 있다고 하니 지나가다가 보이면 한 번씩 윤영서에게 업혀보시길...

[신청, 제유리의 진주제일여고 1-5 학생들]

[씨네통통] 꼭 봐야 할 청소년 영화들 BEST

코로나시대 우리들의 영화를

코로나로 누구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금은 정상등교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다. 학년별 순차 등교나 등교 없이 온라인 수업만 진행될 땐 아마도 모든 학생들은 학교를 그리워했지 싶다. 정상등교라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의 여가생활이나 놀이문화에도 적잖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비대면 문화가 급격히 늘

면서 학생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환경으로 학생들 사이에선 영화가 관심을 끄는 콘텐츠로 주목 받고 있다.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는 조건은 다양하고 많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 '씨네통통'에서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청소년이 꼭 봐야 할 영화를 엄선해 소개한다. 한편씩 정주행하며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갔으면 한다.

정주행하다



영화 파수꾼의 한 장면

파수꾼 Bleak Night, 2010 제작

"내가 널 한번이라도 친구로 생각한 적 있어?"

한 남자 고등학생이 죽는다. 영화에서는 딱히 그 장면이 보이지 않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아들의 죽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조성하)는 생업을 미뤄두고, 아들의 삶을 역추적해 나간다. 장례식때 찾아온 아이도 만나고, 아들 앨범속에 있는 사진들을 보고 친구들을 수소문한다. 아버지는 아들 기태(이재훈)와 절친인 화준(박정민), 동운(서준영) 사이에 우정에 금이 간 것을 짐작하게 된다. 한 아이는 전학가고, 한 아이는 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장례식에조차 오지 않았다. '베프'들이었던 그 세 친구들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천진하고 순수했던 그 시절, 미성숙한 소통의 오해가 불러일으킨 비극적 파국. 독단적 우정이 가져온 폭력과 그 상처의 전염은 우리를 아프고 충격적인 결말로 이끌어간다.

이 영화는 윤성현 감독의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작품으로, 꼭 개봉을 염두에 두고 찍은 영화는 아니라고 한다. 배우들 총 출연료 518만원을 포함해 5000만원의 제작비만으로 청소년의 성장을 다룬 한국영화의 걸작을 남겼으니 감독의 천재성을 짐작할 수 있다.

필통기자의 관람평

허윤지(삼현여고2)기자

10대들이 한 번은 봐야 할 영화로 많이 꼽히는 영화 중 하나다. 그래서인지 관람 전부터 기대를 많이 했다. 하지만 영화 속 이야기 전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보는 내내 정신이 없었다. 기대가 컸던 탓에 솔직히 그만큼의 울림은 아니었다. 그러나 여운이 오래가는 영화인건 확실하다. 학교폭력 같은 영화를 다루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속에서도 또 다른 말을 전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영화였다. 친구관계에 지치고 복잡한 학교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꼭 봤으면 하는 영화다.

김현도(진주고2)기자

사실 영화 제목 자체도 처음 들어봤고 오래 전 영화라 생소했다. 그렇다 보니 큰 기



대감 없이 봤는데 생각외로 몰입도가 뛰어나 재밌게 관람했다. 주연배우 세 명의 연기가 너무 뛰어났다. 실제 상황처럼 느껴졌고 학교 이야기라 공감이 되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다. 특히 마지막 장면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워서 울 뻔했다. 친구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서열을 잘 표현하고 있어서 남고에 다녔거나 지금 학생이라면 대부분 공감할 것 같은 영화였다.



●개봉: 2011.03.03 ●등급: 15세 관람가 ●장르: 드라마 ●국가: 한국
●러닝타임: 117분 ●감독: 윤성현 ●출연: 이재훈(기태), 서준영(동운), 박정민(화준) ●누적관객수: 25,774명

청불이지만 청소년이 봐야 할 영화 BEST?

바람

Wish, 2009 제작

'바람'은 주연 배우인 정우의 실화를 바탕으로 고등학생 청춘들의 사랑과 가족애를 담은 영화다. 눈물, 향수를 자극하는 진솔한 이야기로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흥행 바람을 일으켰다. 특히, '중고등학교생들이 보면 좋은 영화' '학교 선생님과 함께 보면 좋겠다'는 관객들의 요청으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확대시사까지 이어지곤 했었다.

고등학생 남자들이 학교 안에서 일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적으로 표현해낸 영화(바람). 연기력 덕분에 더 돋보인 스토리로 약육강식의 세계,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까지 모든 것이 현실적이었던 영화(바람).

그러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는 영화(바람:Wish)에 청소년관람불가 결정을 내렸다. 영등위는 '교복'을 문제 삼았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거나 대로에서 대처하는 장면, 욕설과 비속어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며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고등학생은 볼 수 없는 고교시절을 다룬 영화가 되고 말았다.

돈 크라이 마미

Don't Cry, Mommy, 2012 제작

또래 남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한 딸의 복수에 나서는 엄마의 이야기를 담았다. 한국영화 중 처음으로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는데 유선, 유오성, 남보라, 유키스 등호 등이 출연했다.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된 엄마가 법을 대신해서 복수를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

성폭행 피해 여고생으로 분한 남보라는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눈물을 흘려 화제를 모았다. 영화에서 그려낸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 가해자들을 직접 심판하려는 엄마의 처절한 복수는 사적 복수를 부추기는 현 세태를 비판한다. 적절한 예방책이나 처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며 직접적인 문제제기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측은 이 같은 등급 분류에 대해 "자살, 살해 장면 등 폭력적인 부분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욕설 및 비속어 표현 등 주제 및 내용, 선정성, 폭력성, 공포, 대사, 모방위험 등을 고려해 청소년 관람 불가로 판정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명왕성

Pluto, 2012 제작

'명왕성'은 입시지옥과 무한경쟁으로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대한민국 사회와 그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작품이다. 한 사립명문고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과 인질극을 다룬 영화다. 입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비윤리적인 방식도 마다하지 않는 학생들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어두운 면과 비극을 담아냈다. 해외 영화제에서도 "십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신선했던 관점으로 표현했다"는 호평을 받은 작품. 문제는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14세 이상 관람가로 초청된 이 영화가 정작 국내에서는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것.

전직 교사 출신으로 입선에서 현장을 체험했던 감독은 "영등위의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이해할 수 없다. '명왕성'은 베를린 영화제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너레이션 14플러스(14세 이상 관람가) 부문에 초청돼 이곳에서 특별언급상을 수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이냐 여타 다른 유럽국가와 청소년들보다 한국 십대들의 사교능력이나 수준이 더 낮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궁극하다. 영등위 위원들은 우리 아이들을 바보로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판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공주

Han Gong-ju, 2013 제작

'한공주'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겪은 고등학생 소녀가 상처를 치유하고 감내하고 극복해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나 사려깊고 섬세한 연출방식을 감안하면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관람을 권장하고 싶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작품이라는 평가다.

이 영화를 연출한 이수진 감독도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보면 좋은 영화인데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한공주는 성폭행을 다루고 있지만 충분히 청소년의 삶에 밀착해 있어서 공감대를 만들만한 영화"라며 "청소년을 너무 어린 이 취급하는게 아닌지, 청소년도 사고를 할 줄 아는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청소년관람불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공주' 등급자료 조화를 보면 선정성과 폭력성, 모방위험은 높은 편이고, 공포와 약물, 대사(저속성 등), 주제는 다소 높음이다.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자극적이며 거칠게 지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 외 선정성 및 모방위험 부분에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야간비행

Night Flight, 2014 제작

'야간비행'은 중학교 시절 절친했지만 고등학교에서 우등생과 일진으로 엇갈린 학창시절을 보내게 된 용주(곽시양 분)와 기웅(이재준 분)의 갈등과 이해를 그린 영화. 학교 폭력 문제와 왕따, 성소수자 문제 등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담아냈다.

선택취미리의 소설에서 제목을 따온 <야간비행>은 교실을 배경으로 하는 심리 스릴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크게 보면 성소수자인 소년인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남 앞에 드러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쿼터 성장영화이기도 하다. 그 안에 우정과 학교폭력, 혐오 등의 코드가 다양하게 들어 있다. 영화는 동네 어딘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법한 십대들의 모습을 과장 없이 그리는데, 그래서 오히려 관객은 그들이 처해 있는 건조하고 냉혹한 현실을 고스란히 체험하게 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영상, 선정적인 대사 및 모방위험' 등을 이유로 들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

버닝

BURNING, 2018 제작

유희회사 알바생 유아인이 어릴 적 동네 친구 전종서를 만나고 그녀에게 정체불명의 남자 스티븐 연을 소개 받으면서 벌어지는 비밀스럽고도 강렬한 이야기이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아 온 세 젊은이들의 만남과 미스터리한 관계, 긴장감 있는 내용을 담은 영화 <버닝>

유아인은 '버닝' 제작발표회에서 "우리 청춘들의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그려낸 작품이다"라고 영화를 설명했다. 당시 유아인은 "버닝"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인데, 오히려 청소년들이 많이 관람해야 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버닝"은 한국의 정서를 담고 있는 한국적 작품이다.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자아낼 시나리오만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버닝'은 남녀 성행위 장면과 흥기 살해 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들이 자극적으로 묘사되었고, 살인과 방화 중독이라는 주제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라고 등급판정 이유를 밝혔다.



[취재/허윤지(삼현여고2), 김현도(진주고2)기자]

[19금 톡톡] 혹시 나도 성병 증상?

청소년 성병 급증하는 현실 이제 성교육 좀 제대로 할 때...

10대 청소년 성병 급증, 5년새 40% 증가 대책 시급

주로 성인 질병으로 여겨지는 성병이 10대 청소년 사이에서도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와 가정에서 개방화된 성(性) 관련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 최근 청소년들 눈높이에 맞춘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심질환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최근 5년 간 10대 청소년 성병 환자수를 보면 2013년 9165명에서 2018년 1만2699명으로 약 38.5% 증가했다. 국내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남학생의 경우 비임균성 균주인 유레아플라즈마, 마이

코플라스마, 클라미디아, 트리코모나스, 헤르페스 등이 관찰됐다.

특이한 점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성병 환자 발생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0대 여성 성병 환자는 최근 5년 새 약 45.4% 증가했다. 그에 반해 10대 남성 성병 환자는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10대 여성은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병원을 찾거나, 생리 등으로 인해 상담 및 검사를 받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환자 수가 많아 보일 수밖에 없다. 자료의 수치만 보고 단순히 10대 남성 성병 환자가 더 적다고 판

단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성 관계 연령이 낮아지면서 남녀를 불문하고 10대 성병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발병률을 높인 주요 원인으로 성에 대해 쉬쉬하며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청소년은 성병에 걸리는데 여전히 성교육은 비디오 틀고 잔다

무엇보다 현실과 동떨어진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하루 빨리 재정비해야 한다. 오늘날 성교육에서 성병 감염의 예방 및 대처에 관련한 교육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피임기구(콘돔) 사용법, 상황별 대처법 혹은 위생적인 자위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

한 증상이 있는 감염자만이 아닌 무증상 보균자도 확인이 가능한 성병 검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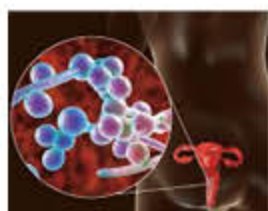
10대 청소년들에게 성 접촉을 아예 못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 임신 위험성에 대해 꼼꼼히 설명하고, 자기 몸

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더구나 학교의 성병 관련 교육이 더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교육청과 의사사회가 MOU를 맺는 등 10대 청소년들이 전문가로부터 직접 올바른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성병의 종류는?

성병은 제3군의 속하는 법정 전염병으로 현재 7종(매독, 임질, 연성하감, 비임균성 요도염, 클라미디아 감염증, 성기 단순포진, 침구 콘딜로마 침형 콘딜로마, 콘딜로마)가 지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성병은 원인균은 30여 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병을 일으키는 원인균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 | | | |
|---|---|--------------------|----------------------|
| 1) 세균 감염 /매독, 임질, 연성하감, 비임균성 요도염(클라미디아) | 2) 바이러스 감염 /음부포진(음부 헤르페스), 침구 성 콘딜로마 침형 콘딜로마, 콘딜로마(곤지름) | 3) 곰팡이균 감염 /칸디다 질염 | 4) 기생충 감염 /사면 발 니, 옴 |
|---|---|--------------------|----------------------|



성행위 안더라도 감염될 수 있어...

성병은 이렇게 다양한 균들의 감염에 의해 발생되며 주 감염경로는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적인 성행위이지만, 성생활의 패턴에 따라서는 입이나 항문을 통해 전염되기도 한다. 다만 사면 발 니 같은 성병은 예외적으로 타월이나 속옷, 카펫 등에서 옮기기도 한다. 또한 개인적인 위생면에서는 불결한 생리대 처리와 같은 과정으로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

증상은 어떻게? 성병에 걸리면 전신 및 피부, 구강, 목구멍, 질과 회음부 등에 각각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1) 미열이나 몸살 기운 : 전신에 나타나는 미열이나 몸살 기운은 매독이나 임질, 바이러스 감염의 전구 증상일 수 있다.

2)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빠짐 : 모기에 물린 것 같은 자국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옴을 의심할 수 있다. 매독에 걸려도 피부 발진이 생기는데 손바닥이나 발

바닥에 잘 생기며, 갑자기 탈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3) 입 속에 하얀 껍질과 궤양이 생김 : 매독일 경우 구강 내에 궤양이 생길 수 있으며, 에이즈 감염 시에는 구강 내에 잘 생기는 칸디다 감염 때문에 하얀 껍질이 입안을 덮는다. 임질의 경우에도 목 감염이 될 수 있다. 매독의 경우에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흔하게 궤양이 생기며, 임질일 경우에는 대하증, 복통 등이 함께 발생한다. 또한 칸디다 질염이나 트리코모나스 질염인 경우 각각 특징적인 냉이 있다.

4) 물집이나 사마귀가 항문까지 번짐 : 헤르페스일 때에는 회음부에 수포나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 곤지름일 때는 닭 벓(혹은 서양채소의 일종인 꽃양배추 모양의 사마귀) 등이 생기기도 한다. 매독일 경우에는 궤양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임질이나 기타 요도염일 경우에는 요도 끝에서 고름 같은 분비물이 흐를 수 있다. 성기에 생길 수 있는 이상의 병변들이

점차 항문 주변까지 번지기도 한다.

5)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성병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애매하거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성병에 노출된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본 후 만일 가능성이 있으면 정밀 검사를 받아 병이 진행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성의 성병은 남성의 성병에 비해 특별한 이상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병을 가지고 있는 여성 환자의 40~60%가 무증상일 수 있으며, 그러 인해 병을 진단받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질환을 계속 전파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남성의 경우 주로 요도염 등 비뇨기계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거나 고름이 나오는 등 이상 증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비해, 여성의 경우 질염이나 골반염 등 병이 어느 정도 진행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

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여성의 성병은 자궁과 난관(나팔관)을 통해 복막 내부로 퍼지면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임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병의 예방 및 초기 진단과 치료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취재/ 정보경(중앙고1), 이영광(진주공고2)기자]

성병에 관한 시시콜콜 궁금증

Q 성기가 간지럽거나 따갑기만 해도 성병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귀두의 경계면을 따라서 모래알같이 오돌도돌하게 나있는 '진주양구진'을 곤지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진주양구진은 성병이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돌기가 엉뚱한 위치에 있거나 크기가 점점 커지면 문제가 되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귀두와 포피 사이에 염증이 생겨 헉거나 고름이 생기는 '귀두 포피염'도 성병이 아니다.

Q 성관계 없는 감염이 가능한가? 화장실, 목욕탕, 수영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성병이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한다.

성병이 반드시 성행위로만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분비물에 의해 옮겨질 수도 있는데 속옷 등 감염 부위가 직접적으로 닿은 물건을 다른 사람이 착용하는 경우에는 성행위 없이도 감염될 수 있다. 찜질방, 헬스장 같이 옷을 대여해 주는 곳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특히 옴이나 전염성 연속증, 사면발이 등이 옷 등을 통해 잘 전염된다.

Q 자각 증상이 없는 성병도 많은데, 정기 검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알 수는 없을까?

의학적으로 성병에 감염되었지만 증상을 못 느끼거나 없으면 무증상 보균자라고 한다. 성병의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다. 잠복 매독의 경우는 전혀 증상이 없어 혈액검사로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에는 매독, 에이즈에 대한 검사가 포함이 되나 다른 원인을 확인하는 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성병이 걱정된다면 비뇨기과에 가서 진찰을 받고 상담을 받아야 한다.

Q 콘돔으로도 예방이 불가능한 성병도 있지 않은가?

헤르페스나 임질, 매독 등은 성관계뿐 아니라 다른 접촉부위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성기 헤르페스는 콘돔을 사용해도 예방 효과가 60% 정도에 불과하므로 안심할 수 없다. 따라서 입술과 성기에 헤르페스가 생겼을 때는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 특히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이 남자에게는 큰 문제가 없으나, 여자에게는 자궁암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매독도 성교뿐 아니라 오럴 섹스, 항문 성교, 심지어 격렬한 키스만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 최근에는 항생제 남용으로 증상을 잘 나타내지 않는 잠복 매독도 많다. 임질의 경우, 남성에게는 불임, 부고환염, 전립선염, 요도협착의 원인이 되며, 여성은 골반염, 출산 후 자궁내막염, 자궁 외 임신, 방광염, 습관성 자연유산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치마 가리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무조건 치마교복을 고수하는 우리 학교의 웃픈 현실

일명 '치마 가리개' 라고 하는 가림막이 있는 책상을 본적이 있는가? 여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가장 불편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교복 치마를 꼽을 수 있다. 치마를 입게 되면 활동하는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적잖이 신경이 쓰이게 된다. 수업에 집중하다 보면 다리를 꼬거나 한쪽을 올리는 등의 편한 자세를 취할 수도 있는데 앞이 뺨 뚫린 책상에서는 이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담요를 찾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는 교복 바지를 허용해 주기도 하지만 치마교복이 기본 선택이라 추가로 4~5만원의 비용을 들여 바지를 구입해야 하는 형편이다.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처음부터 '치마 가리개'가 부착된 책상이 제작되기도 한다.

책상 앞 가리개는 치마 때문에 노출을 우려하는 여학생들의 불편도 없애주지만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편이성을 준다. 학생들 스스로 자세가 꼬이거나 흐트러지는 순간들을 의식하지 않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수업하는 교실의 통일감을 주어 교사들의 교수과정에 집중력을 높여주어 수업효율을 높인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진주시 관내 여자고등학교 혹은 남녀공학인 고등학교 중 이렇게 '치마 가리개'가 설치된 학교는 단 2곳이다. 긍정적인 효과 때문인지 어떤 학교는 학생회장 선거 중 공약으로 책상 '치마 가리개'를 설치하겠다는 후보가 있기도 했다. 이처럼 치마를 입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책상 '치마 가리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이를 반영하는 학교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엔 무릎 담요를 덮을 수 없는 학교 규정 때문에 앞이 다 보이는 책상은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치마 가리개'의 장점과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의 책상에 대한 만족도가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막상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반응은 조금 의외였다. "일단 매우 불편하다. 가리개로 인해 다리가 걸리고, 가림막 사이사이로 보일 거 같은 불안감이 있다." "가장 불편한 점은 책상을 앞뒤로 돌릴 수 없어 수행평가나 쪽지 시험 등 작은 시험 때도 책상 서랍을 모두 비워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더 번거롭다." 등의 불만스런 의견들이 적지 않았다.

또한, 최근 부산시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한 이 교실 책상 가림막 설치비용으로 4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부산뿐 아니라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7억 5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

했다. '여학생들에게 치마를 고집하는 학교가 문제'라는 주장과 '꼭 필요한 현실적인 조치'라는 주장이 부딪혔다.

어찌 보면 간단히 바지교복을 허용하면 해결될 일이다. 여전히 교복 또한 학생들의 선택이 아니라 학교의 방침이라는 웃픈현실이 느껴진다. 또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한 일이다. 지금 당장의 현실로 돌아가면 '가리개'가 설치된 학교 학생들은 '가리개'가 불편하다고 하고 '가리개'가 없는 학교 학생들은 '가리개'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아우성이다. 결국 문제는 가리개가 아니라 교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취재/ 김선진(선명여고2)기자]

위험한 등굣길 십 수년, 왜 대책이 없는가?

동명중, 고등학교 위험천만한 등교는 사고를 부른다

진주 동명중, 고등학교의 등굣길 풍경이다. 학교 후문쪽은 비가 오는 날이면 좁은 외길이 학생들을 데려다 주는 부모들의 승용차와 등교하는 학생들로 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진다. 가끔씩 접촉사고와 학생들이 다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진주 동명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거의 2천여명 가까운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를 한다. 정문 쪽은 그나마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역시도 수많은 학생들이 날마다 등하교를 하는 길임에도 인도가 없다. 충분히 인도를 만들 수 있는 도로 폭임에도 원일인지 그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후문쪽은 심각하다. 1차로의 좁은 농로와도 같은 진입로가 학교 개교 당시와 전혀 다른 수많은 학생들의 등하교 길로 이용되고 있

다. 인도는 고사하고 도로 자체가 좁아서 학생들이 몰리는 시간대엔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다. 그런데 만일 비라도 내리는 날엔 위험천만한 광경들이 벌어진다. 학생들을 데려다 주는 승용차들이 줄을 잇고 그 차들이 학교 후문에서 다시 돌아 나오기 때문에 등교하는 학생들과 진입하는 차와 나가는 차들이 엉켜서 북새통을 이룬다. 결국 항상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학교 가는 길, 지나는 승용차들로 한 발걸음 옮기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할 형편이다.

집 한 두 채에 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엄청난 돈을 들여 냇가에 다리를 놓는다. 누구나 그것은 당연하게 나라가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한다. 그런데 2천여명이 날마다 등하교를 하는 길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제기가 십 수년째 계속 되어도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직접 당사자가 힘없는 학생들이라서

그런 것일까? 아직 큰 인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일까? 분명한 것은 이곳이 학교가 아니라 상가나 주택가등 이었다면 어떻게든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다. 어른들이 또한 그것을 계속 두고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도로를 넓히고 인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당장이라도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등하교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하는 부분적인 차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후문 진입로 자체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위험하다. 이런 위험이 항상 존재함에도 방치하고 내 버려 둔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큰 사고가 터져야 들여다보고 바로 잡



기엔 우리 사회에는 너무도 가슴아픈 안전사고들을 많이 겪었다. 하루빨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이 확보되길 바란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당장이라도 울타리 설치, 도로 확장, 인도 개설이 필요하다.

[취재/ 노현승(동명고1)기자]

자퇴나 검정고시가 인생을 망친다고요?

스스로의 준비와 계획이 없는 자퇴는 순간적인 도피일 뿐

'자퇴'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아마도 긍정적인 이미지 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연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예전 자퇴라 하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나 일부 '문제아'들의 전유물처럼 바라보는 시선이었지만 요즘은 좀 다른 모습들이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되어 학교에서의 공부보다 자퇴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기도 하고 확실적인 학교 입시보다 실질적인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기도 한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오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님에 의해 강제로 떠밀려 들어온 학생들은 더욱더 자퇴에 대한 고민이 깊다.

실제 학생들의 자퇴율은 얼마나 될까? 2019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전체 학생 중 1.9%가 학업중단 학생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에는 학업 관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기타 부적응이 다음 이유로 나타났다. 실

제 자퇴한 학생 G군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Q. 자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제일 먼저 자유롭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넉넉하고 덜 바쁘며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제 주변을 제대로 돌아 볼 수 있게 되며 자아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Q. 자퇴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학교를 안 가서 그런지 비교적으로 소외감이 들고 남과 비교되며 상대적 박탈감과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우울해질 수도 있으며 어린 나이에 스스로 결정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힘듭니다."

Q. 검정고시를 언제 응시하는 것이 좋나요?

"자퇴를 하고 바로 검정고시를 준비해 최대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퇴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조언?

"목적이 확실하면 추천합니다. 학교가 싫다고 자퇴하는 것은 제일 비추입니다. 참고로 내가 책임 질 수 있으면 자퇴도 좋은 방법입니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정확한 정답은 없다. 나를 관찰하고 제대로 알아야 이 시대에 잘 살 수 있다. 학교만이 모두가 따라야 할 유일한 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자퇴고민이나 자퇴 결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뚜렷한 목표다. 대학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길이 목표가 될 수도 있다. 그 길에 학교가 아닌 자퇴라는 과정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학교는 그냥 주저하는 것이 많지만 자퇴는 그것을 선택한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준비와 계획이 없는 자퇴는 순간적인 도피일 뿐이다.



누군가 그랬다. '학교는 학교일 뿐이다.' 어차피 학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도 않고 나를 위해 준비된 학교란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떠나고 싶은 곳이라도 길을 찾아보는 노력이 더 우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프고 부딪히면 또,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또 망가고 숨으려 하는 내가 뭤테니 말이다. 자퇴는 자신이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돼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선택이야말로 말로 충분히 존중 받아 마땅한 결정이 아니겠는가.

[취재/ 박재상(명신고1)기자]

[뭐하고 놀아?] 친구랑 연인이랑 케이크만들기 체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케이크 같이 만들러 갈래?

뭐하고 놀아?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도 식상하고 그 답변도 뻔한 게 안타까운 우리 10대들입니다. PC방, 노래방외엔 딱히 떠오르지 않죠. 분위기 좋은 카페에 눌러 앉아 수다 떠는 것이 작은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친구들이랑 맘 흘리며 운동하는 것도 마음처럼 쉬운 것이 아닌 요즘입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노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 JUST! NOW!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통은 친구들과 또 연인들과 또는 가족들과 재미있게, 또는 의미있게 잘~ 놀 수 있는

꺼리를 찾아봅니다. 이번에는 수제 케이크만들기를 추천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직접 만들어 보는 케이크, 진주에도 비용면에서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케이크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나 기념할만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떠오르나요? 수많은 것들 중 '케이크'가 단연 가장 먼저 생각할 겁니다. 특별한 날 케이크를 "직접" 만든다면 감동도 재미도 2배가 됩니다. 진주시내에 위치한 '멜리샤'를 찾아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사전 예약, 신박한 수제 케이크 체험



멜리샤는 진주시내 대양서적 맞은편에 위치하며 주소는 진주시 축석로 184 중안동 3-1입니다. 체험을 하려면 미리 전화 (055-741-8037)로 예약 해 일정을 조정하면 됩니다.



가게 내부는 기분 좋은 향기와 쾌적함이 느껴집니다. 머랭쿠키와 슈가 폰트 케이크 판매용 케이크들이 예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화나 방문으로 간단한 예약만 하시고 가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케이크를 어떻게 꾸밀지 이미지와 문구를 정하고 이를 종이에 수십 번 연습합니다.



그 다음, 노베이스의 생크림 케이크 위에 이쑤시게로 도안을 그려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파인 생크림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담이 된다면 이쑤시게로 점만 찍어서 표시해도 된답니다.



그 후 초코팬들을 지급 받는데 정말 여러가지의 알록달록한 색깔들의 팬들입니다. 이쑤시게 도안 위 조심조심 초코팬들을 짜며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필통 기자들은 누군가의 이름을 선택했고 열심히 그리고 섬세하게 초코팬을 짰습니다. 색깔별로 케이크의 테두리를 하고 싶다면 그래도 됩니다. 검은 테두리를 잡는 게 조금 더 깔끔하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크림이 지급 됩니다. 이 또한 색색의 생크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시험해 봐도 좋은 시간입니다. 이후엔 각자의 취향껏 케이크를 다양한 방법으로 장식하면 됩니다. 시럽도 짜 보고 생크림으로 테두리도 칠해보는 등 하다보면 케이크에서 조금의 여백을 남겨두지 않을 만큼 열심히 만들게 됩니다.



완성된 케이크입니다. 다소 정신없어 보이지만 장시간 정성을 쏟았기에 그 뿌듯함에 가려 마냥 예뻐만 보입니다. 아마도 케이크를 만들어 본다면 이 감정은 누구나 공감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 여쭙보았습니다



Q. 하루에 보통 얼마나 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하러 오나요?

A. 날마다 다르지만 평균 5팀은 체험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Q. 케이크 만들기 체험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A. 25000원입니다. 물론 더 큰 케이크를 원하시면 추가 금액이 부과 됩니다.

Q. 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하러 오는 손님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미리 만든 케이크의 전체적인 도안을 생각해 오셔야 합니다. 바로 현장에서 떠오르는 대로 하다보면 뻔한 내용이 되고 특별함이 떨어지니까요. 도안을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코로나19 시대의 생일 파티 케이크 촛불을 불어서 꺼도 괜찮을까?



생일이나 축하파티에서 케이크에 꼽힌 촛불을 입으로 끄는 건 자연스러운 오래된 전통이다. 하지만 촛불을 입으로 불 때 케이크 및 주변으로 퍼지는 각종 세균을 생각해 보면, 코로나19 시대에는 사라져야 할 관행이 아닐까?

생일 케이크와 촛불의 불편한 진실

감염병 전문가인 이스트 앵글리아 의대 폴 헌터 교수는 허프포스트UK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더라도, 촛불을 불어서 끄면서 가족과 친구들이 먹을 케이크에 침을 사방에 뿌리는 건 좀 더러운 관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같이 코로나19가 전 세계 유행인 상황에서 정말 추천하지 않는 관행이다"라고 덧붙였다.

2017년 식품 연구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는 케이크 위의 촛불을 불어서 끄는 전통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잘 보여준다. 시험 참가자들은 피자를 먹은 후 생일 케이크 촛불을 불어서 끄라는 지시를 받았다. 연구자들은 촛불을 입으로 불어서 불을 끄는 때 케이크 표면의 박테리아가 촛불을 끄지 않았을 때보다 1400% 이상 증가하는 걸 확인했다.

연구진은 "케이크 위 촛불을 불면 구강 세균이 케이크 위로 옮겨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식품으로도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 생일 촛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행인 건 분명하다.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경로가 비밀이기 때문이다. 주로 사람이 말하거나, 웃을 때, 노래할 때, 또는 단순히 숨만 쉬어도 비밀이 나와 주위에 전파할 수 있다.

헌터는 이미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가족 등과 같이 있을 때 생일 케이크의 촛불을 끄거나 나눠 먹는 건 큰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케이크 위의 비밀뿐만 아니라 생활의 공간에서 어차피 이미 서로 위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내 생일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켜고 우리 둘만 있다면 아내가 촛불을 꺼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는 말했다. 문제는 이웃이나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 파티다. 그는 그럴 경우 매우 불안해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촛불을 꼭 불고 싶다면, 현재 제일 좋은 방법은 케이크를 미리 잘라 나눠 놓고, 내가 먹을 케이크 위의 촛불만 부는 거다. 물론 이때도 촛불을 불어서 끌 때 사람들과 멀리 떨어질수록 안전하다. 웃픈 현실이다.

[맛집 맞지] 세상에 없던 곱창? 칠암동 곱분이 곱창을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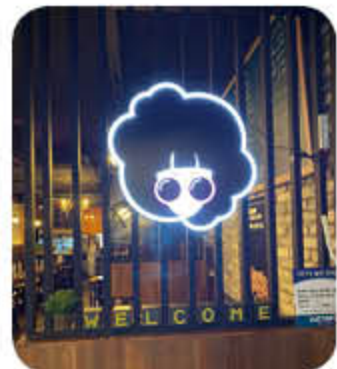
세상에 없던 곱창을 선보이다?! 직화의 숯불향을 진주 곱분이 곱창에서 느껴봐!

걸그룹 마마무 멤버인 화사의 곱창 먹방이 전국적으로 '곱창 대란'을 일으킨지도 2년이 훌쩍 넘어 곱창이 국민 음식으로 자리 잡은 지도 오래다. 곱창은 호불호가 강한 내장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을 받는다. 이번에 필통 기자단은 SNS 상에서 10대에게는 곱창 맛집으로, 20대에게는 분위기와 맛있는 안주를 즐겼다고 소문이 자자한 '곱분이 곱창'으로 맛집 검증 다녀왔다.



필통 기자단은 먼저 오픈하고 평이 더 좋았던 칠암동 진주점 곱분이 곱창을 방문했다. 위치는 고속버스터미널 정류장에 내리면 도보로 3분 정도에 위치해 있다. 진주점은 과거에 6월 오픈했고, 올해 8월 가좌동 경상대점도 오픈했다. 이름하여 곱분이곱창!! 간판부터가 레트로 느낌 뽐냄 *진주점-진주시 동진로 34번길 7-1/경상대점-진주시 진주대로 552 유시티 1층 112호

간판부터 네온사인을 이용해 세련된 디자인이다. 오래된 듯한 배경과 합쳐져 고~오급스러운 복고풍 느낌을 준다. 위치는 진주 고속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보이는 스타벅스와 GS 25사이 골목에서 직진 하면 된다. 버스정류장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영업시간은 진주점은 16:00-2:00까지이고 경상대점은 마감시간이 한 시간 늘어난 16:00-3:00다. 점심시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으니 저녁에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가게를 입장하면 바로 앞에서 곱분이 곱창의 마스코트인 곱분이 WELCOME이라는 블록과 함께 손님들을 맞고 있다.

가게 벽면에는 칠판에 수필로 쓴 듯한 메뉴판이 있다. 아무래도 곱창이 저렴한 음식은 아니다 보니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다.



메뉴판에도 나와있듯 2인분 이상 주문이 가능한 점을 숙지할 것.



고급스러운 상들이리가 천장에 달려있다. 또 네온사인으로 '나는 너뿐이고 곱창은 곱분이고'라는 멘트까지 있어 달달하면서도 느끼한 아재 개그를 하고 있다. 카운터 앞에는 '당신의 인생 곱창'이라는 문구에서 사장님의 엄청난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고자 함이 느껴진다.



벽에 있는 메뉴판 외에도 테이블마다 귀여운 메뉴판도 비치되어 있다. 다들 처음 가봐서 뭘 먹어야 되나 해서 직원분한테 물어봤는데 처음 왔으면 직화모듬 추천한다고 한다. 모듬은 곱창+막창+오돌뼈로 이루어져 있어 특별히 가라는 것이 없고 많은 메뉴를 즐기고 싶다면 모듬 메뉴를 선택하면 될 듯 하다. 요기요에서 배달도 된다고 한다. 배달은 2인분 이상 가능하다.



팁. 하나 메뉴사진과 해시태그를 넣어서 SNS에 올리면 음료수 1병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한다. #진주 맛집 #곱분이곱창 #진주 곱창 #존맛탱



기본 상차림이다. 어묵탕, 각종 소스, 마늘과 고

추, 양파장아찌, 상추다. 소스는 마요네즈(+고추냉이)칠판 소스 씬장 이렇게 3가지인데 고추냉이가 1도 안 매워서 마요네즈에 많이 섞어 먹어도 하나도 안 맵다. 기본으로 나오는 어묵탕? 유부? 후추맛 팍팍하고 의외로 맛있다. 어묵탕인데, 이게 아주 묘하게 계속 손이 간다. 이곳은 어묵탕 맛집!!



직화곱창 10,000 / 직화막창 12,000

드디어 메인메뉴 등장! 비주얼은 단연 최강이다. 정말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부추와 마카로니 샐러드도 곁들여져 있고 떡사리도 들어있다. 조리가 다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먹으면 된다.

곱창에 눈꽃 치즈를 추가한다면 사장님께서 눈꽃 치즈를 뿌린 뒤 토치로 불 소를 해주시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눈앞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치즈를 보고 있자니 침이 절로 넘어간다. 먹고 난 뒤 곱창을 남겨서 볶음밥은 필수! 그리고 함께 나오는 소스인 마요네즈와 고추냉이를 섞은 이 친구가 아주 오물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입맛을 돋우며 함께한다.

필통기자 솔직 후기

◆오지원기자(진양고2)

사실 곱창을 한 번도 먹어본 경험이 없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도전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식감이 이상하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곱창엔 선입견이 있었다. 곱창을 처음 먹어본 것이라 객관적인 평가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경계 가득한 나의 미각에 굉장히 풍부한 직화 향과 쫄깃한 식감이 어우러지면서 예상밖의 신선함과 먹는 즐거움을 주었다. 쫄깃한 곱창과 막창,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딱딱한 오돌뼈가 매력 있었다. 개인적으로 눈꽃 치즈는 비주얼은 좋으나 본래의 양념 맛이 묻히는 것 같아 비추천한다. 볶음밥은 꼭 먹을 것을 권한다! 그리고 곱창은 수시로 볶으면서 먹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처럼... 탄다.ㅠㅠ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사장님도 끝까지 '식사는 편찮으셨나요?'라고 손님들의 입맛을 걱정해주는 면에서 마음의 따뜻함까지 느낄 수 있어 좋았던 것 같다.

별 5개 중 (★★★★★) 5개

◆김시은기자(제일여고1)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네온사인이 눈에 가장 띄었다. 상들이리로 전등과 함께 내부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 보였다. 주문하기 전 기본으로 어묵탕을 주는데 미리 끓여 나와 바로 먹을 수 있어 좋았다. 의외로 어묵탕도 맛있다. 주메뉴인 곱창이 나왔을 때에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게 조리되어 나와서 좋았다. 곱창 양이 적어 보였는데 보기와 다르게 실제로는 배를 채우기 충분한 양이었다.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곱창과 함께 부추가 나왔는데 부추의 양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었다. 두 번째는 양파장아찌의 양파가 덩어리째로 되어 있어 먹기가 너무 불편했던 점은 아쉬웠다. 마지막 비벼먹는 볶음밥은 배가 불러도 먹으면 후회 안 할 정도로 맛있었다. 곱창을 좋아한다면 한 번쯤은 가봐도 후회하진 않을 것 같다.

별 5개 중 (★★★★) 4개

식사중인 학생들의 솔직 인터뷰

사고등학교 학생 B(18)

"가게 내부가 아기자기한 인테리어로 곱창집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아 신기했어요. 곱창도 맛있고 찍어먹는 소스가 마요네즈였는데 와사비랑 섞어 먹는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에 비해 양이 적은 것 같아 좀 아쉬웠어요. 곱창 먹을 때 치즈추가는 하지 않게 좋을 것 같고 사이드로 나온 오돌뼈가 진짜 맛있어요. 후회는 안할 것 같아요"

별 5개 중 (★★★★★) 3개 반

조고등학교 학생(17)

"페이스북에서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가게 밖의 디자인은 사진과 같았고 가게 안의 분위기는 조명 때문이라는 모르겠지 만 솔직 분위기가 나아요. 가격이 생각보다 비싼 느낌이었는데 직접 먹어보니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괜찮았어요.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별 5개 중 (★★★★★) 4개

고고등학교 학생(17)

"이런 시간이었는데도 손님이 있어 안기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맛은 냄새가 거의 안 난다고 했는데 냄새에 예민한 전 못 먹을 정도 아니었지만 미미하게 냄새가 느껴졌어요. 양이 많아서 주문할 때 사람 수에서 배기 일 인원 정도 하면 알맞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별 5개 중 (★★★★★) 4개

틀리지도 다르지도 않은 같은 사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는

(소재지는 진주시 동신로 273, 상대동 한전 진주지사 옆이다. /055-762-0179)

시간을 만납니다

[illegible]

장애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 중 청소

봉사활동	횟수	요일	하는 일
집단 급식소	주 5회	월, 화, 수, 목, 금	음식 조리 보조, 배식, 설거지, 뒷정리 등
일반찬 지원 서비스	주 1회	목	일반찬 포장 및 배달
중증 장애인 목욕서비스	주 1회	수	여자 목욕서비스, 뒷정리 등
	주 1회	목	남자 목욕서비스, 뒷정리 등
이/미용 서비스	월 3회	-	이/미용
탁구장 자원	주 5회	월, 화, 수, 목, 금	장애인 자조 모임 지원

※ 또는 장애인복지관 전화번호(055-762-0179)로 직접 연락해서 신청문의할 수 있다.



A. 장애 진단을 받으면 혜택이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장애 진단을 받더라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지원해주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이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것보다 사소한 것부터 보고 고치면 장애인들이 당장 생활할 때 편리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눈을 보며 말해요

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끝까지 경청해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도와드릴까요?
물기 전, 먼저 물어보세요

장애인 전용 시설
비장애인 이용 금지

유도블록 위에
물건을 놓지 마세요

구체적인 거리로
길을 설명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장애인도
배려해 주세요

[취재/ 조예은(삼현여고2), 하해주(진주기공1) 기자]

그래, 학생다움이 대체 뭔가?

불분명한 통제와 제한보다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

학교를 다니는, 또는 다녀본 학생이라면 한 번쯤 이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학생답게' 또는 '학생의 신분에 맞게' 모두들 대충 느낌은 오지만 정작 이 말뜻을 아는 사람을 거의 없을 것이다. 대체 이 문구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개인적으로 학생다움은 우리에게 학생으로써 FM의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부하는 기본 베이스, 학교에서 요구하는 바를 잘 지키고 학교와 타협하며 조율한 모범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싶다. 정작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물어보았다. 대개 비슷했다. 학생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식어, 부정적이고 거부감을 나타내는 친구들도 많았다.

물론 '학생다움'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듯 하다.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학생다움이라는

단어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죽인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교칙으로 제한하는 두발, 교복 등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개성을 뽐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시대착오적이다. '머리가 길면 공부할 안 한다.', '교복을 입지 않으면 학생답지 않다.' 등은 너무나 구시대적 발상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1항에는 분명히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적혀 있다. 청소년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청소년 역시 그들에게 신체의 자유가 있음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학생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무조건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모습을 강요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또 대한민국 헌법 제11조1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법과 정의를 배운다. 교과서에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 학교란 곳에서 오로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동의할 수 없는 다양한 차별이 이루어진다면 그 또한 옳지 않다.

학생이니까, 학교니까 무조건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만이 옳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물론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 공동체공간이니까 규제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자신이 만든 룰을 스스로 지키며 룰을 어겼을 때에도 함께 합의한 처벌을 주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어떨까? 그것이 훨씬 더 교

육적이고 민주주의 사회에 맞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 처음엔 서툴지 모르지만 학생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환경이 만들어 지길 기대한다.

학생들도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목표, 가치관 모두가 다르다. 똑 같은 사람은 없다. 그 다양함을 한마디 말로 획일화 시킨다면 그 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 다움'이라는 불분명한 말로써의 학생들을 통제와 제한하기 보다 이제는 모두가 납득할만한 올바른 가치가 무엇일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취재/ 곽성민(진주고1)기자]

선생님 이걸 안 배웠는데요?

보충수업과 학원수업을 전제로 시험을 출제하면 공정한 평가 아니다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시험이다. 학생들에게 시험은 단순히 자신이 공부한 것을 평가 받고 교사들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그동안의 수업을 점검하는 행사 차원을 넘어 선다. 그것은 내신 성적이 대학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그런 이유로 시험기간이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 하나 하나, 점수 1점에 예민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 늘 정기적으로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험을 친다. 대입 수시전형은 이러한 시험 점수를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시험이 대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학생들은 시험에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문제를 틀리면 자연스레 스트레스도 받게 된다.

그럴 경우 짜증이 나서 시험을 어렵게 낸 교사를 욕하기는 해도 막상 '왜 이리 어렵게 냈

어요?' 외에는 딱히 할 말이 없다. 언제나 교사들은 배운 범위에서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 수업시간에 배우지 않았거나, 또한 담당교사가 가르친 내용이 아닌 내용이 시험에 출제 된다면 어떨까?

G고 2학년 1차고사에 배운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수준의 영어문법이 출제되었다. 시험 후 이의제기 기간에 담당교사 또한 수업 시간에 따로 배우지는 않은 어려운 문법이라고 인정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 8조 3항 1호에 보면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경제적 여건의 차이로 시험성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교과서와 수업자료는 수업시간에 모두 배운 것들이고 학생 스스로 공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충교재나 모의고사는 다르다. 보충수업을 신청하지 않거나 모의고사 수업을 따로 하지 않는 학생은 그 내용을 모르거나 혼자 따로 공부하기 힘들다. 더구나 이런 시험에서는 학생을 다니는 학생과 혼자 공부하는 학생 사이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학원에서 모의고사 풀이는 물론 변형문제나 예상 문제, 타 학교의 기출 문제 등을 이용하여 공부를 한다. 하지만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엔 모의고사 해설지에만 의지 할 수 밖에 없다. 모의고사가 학교 내신 시험 범위에 포함 될 때는 당연히 변형문제가 나오기 마련이다. 이것은 학교 수업만으로는 공정한 경쟁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명백한 기회의 불평등이 아닐까?

시험은 수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수단이다. 공부를 하지 않아 그만큼의 성적을 못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 내신 시험이 불공정한 룰로 인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보충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전제 위에 시험을 출제하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은 문명해 보인다.

[취재/ 배재현(사대부고2)기자]

우리는 성적 노출을 원하지 않아요

성적은 중요하고 내밀한 개인정보, 공개 권한은 오직 학생 본인에게

보통의 학생들은 1년에 4번, 한 학기에 2번은 필수적으로 시험을 치른다. 시험이 끝난 날, 누군가는 출가분한 마음으로, 또 누군가는 망친 시험지를 들고 착잡한 마음으로 학교를 나선다. 학생들에게 시험은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한 행사가 아닐 수 없다. 훗날 학창시절을 추억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시험일' 것이다. 시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공부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게 하고, 원하는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데 도움을 준다.

시험은 이렇게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항상 기본적인 스트레스를 준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시험 스트레스의 복병이 있다. 학교에서는 시험이 끝나면 교사들이 그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다. 학생들에게 성적 결과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틀린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바로 이러한 성적 검사 때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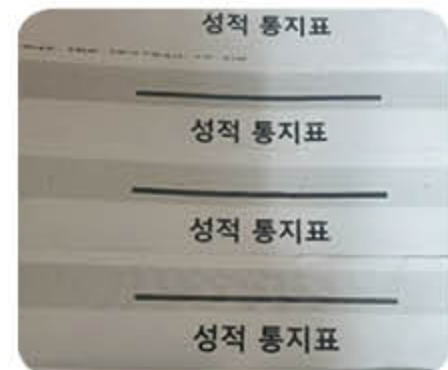
이런 성적 검사는 교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교사가 직접 하기도 하고 반장이 검사를 대신하기도 한다. 성적 검사를 하면서 반 학생들의 성적을 무작위로 주며 사인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남들에게 공개하기 싫은 자신 성적을 친구들이 본다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물론 다른 친구들의 성적을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나의 성적을 누가 보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은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준다.

성적은 학생에게는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다. 성적은 부모님에게도 보여주지 꺼려할 정도의 자극적 개인적인 정보다. 누군가의 개인 정보를 아무 동의없이 공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권한을 학교나 교사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 권한을 부여한 것도 아니다. 분명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러한 의도치 않은 성적 공개에 큰 거부감을 가지

고 있다. 비교되는 점수에 수치심은 물론 상대적 박탈감도 상당하다.

어른들이나 교사들은 큰 문제의식 없는지 모른다. 어이없게도 성적공개가 학생들에게 자극이 되고 오히려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그렇지 못한 학생이든 자신의 성적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 성적은 분명 해당 학생의 것이다. 중요하고 아주 내밀한 개인정보다. 그것의 관리는 신중해야 하고 공개 역시 오직 학생 본인에게만 권한이 있다.

성적은 학생들에게 아주 민감한 개인 정보이고 누구에게는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다. 성적이 공개되었을 때, 학생들이 받아야 할 열등감과 스트레스는 고등학교 시절 동안 괴리표처럼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또한 학생들 사이의 서열화를 유도함으로써 경쟁



심리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학생들 개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과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사를 한 번이라도 물어 보았을까?

더구나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요즘, 정작 학교는 학생들의 일상속에서 차별의식을 심어주는 것에 무감각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시험성과 순위 등을 공개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한다.

[취재/ 정예림(진주여고2)기자]

성관계 없는 성교육, 흥철없는 흥철팀

성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성교육이 문제다

성교육하면 학생들은 무엇을 떠올릴까? '생물시간 아닌가?' '정자, 난자 이야기지.' '똑같은 레퍼토리의 비디오' 한결 같은 대답일 것이다. 또 성교육 시간은 잡자는 시간쯤으로 인식하는 학생들도 많다. 대체 세상을 초단위로 바뀌어 가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성'은 금기의 대상이기에 할까?

우리나라의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의 근본 문제는 무엇일까? 바로 성교육의 핵심인 구체적인 성관계에 대한 교육을 꺼려한다는 것이다.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시급하다. 물론 성관계 관련 교육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통 대중이다. 정의를 알려주는 것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이다. 성문제로서 가장 핵심인 성관계에 대해 접근을 막고 대체 무슨 교육이 되겠는가? 무슨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성교육 같지도 않은 성교육조차도 청소년 연간 경험률 78.6%다.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교육을 가장 하찮게 취급하고 있는 우리나라다. 제대로 된 성관계 관련 정보는 찾을 수 없다. 교과서에도 없고 성교육시간에도 없다. 교사의 재량에 따라 교육 내용도 천차만별이다. 보수적인 학교와 교사의 태도, 학부모의 민감한 입김, 학교에서 성교육은 성관계 없는 성교육이 된다. 성교육이 사라진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성관계를 독학으로 터득해야 하는 현실이다.

성관계 관련 교육은 중요하다. 성교육은 남녀간 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관계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성관계가 빠진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성교육은 무용지물이 된다. 성관계에 대한 무지는 포르노나 불법 촬영 영상같이 자극적인 영상으로 인한 오염된 정보를 맹신하도록 하고 성에 대한 비뚤어

진 시각과 오해를 낳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청소년 성관계 경험률은 2018년 중학생은 2.6%, 고등학생은 8.5%에 이른다. 또한 성관계 시작 평균연령은 남성 13.3세, 여성 14.4세로 그 연령대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과연 이들은 성관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성교육 시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의무화해야 한다. 교육 내용 역시도 콘돔 사용법에서부터 성관계 방법에 대한 것까지도 제대로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상대를 존중하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지 가르쳐야 한다. 청소년 때, 아니 더 이전부터 성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히면 우리 사회에도 큰 문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서 성은 감춰야 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누구나 제대로 잘 알아야 하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어쩌면 청소년들에게 가장 정확히 자세히 일상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것이 바로 '성'이다. 분명한 것은 오늘의 우리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 실질적인 교육을 받질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아동이나 야설에 우리 청소년들의 성교육을 맡겨 둘 것인지 조금은 답답하다. 성교육, 이제는 구체적이고 직설적이어야 한다.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청소년에게 섹스가 문제가 아니다. 성교육이 문제일 뿐이다.

[취재/ 광경규(명신고1)기자]



교내대회의 목적은 세특이잖아!

학교에서의 상은 입시를 위한 스펙이고 도구일 뿐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상을 받았을 것이다. 상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남들 앞에서 상을 받는 내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대단하다고도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를 오면서부터 상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되어 버렸다. 뭔가 찝찝한 그 무엇, 나의 재능을 인정받기보단 대학 입시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이다.

대학입시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 수능 점수, 교과 성적으로 결정되던 과거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의 개성이나 잠재성, 노력을 중시하는 시대로 변화했다. 학생들은 이제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수상 실적, 진로 활동,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이력을 통해 자신의 전공적합성과 잠재력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 교과/종합 전형)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학교생활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가 입시의 키포인트가 되었다. 이런 변화된 정책은 학교 현장에서 일명 '스펙' 쌓기 용으로 이전보다 훨씬 많은 다양한 대회들을 개최하

고, 지나치게 많은 인원에게 상을 남발해 빈축을 사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많은 교내대회가 열린다. 당연히 수많은 수상자가 만들어지고 그만큼의 상장들이 남발된다. 학교는 일 년에 수십개의 대회를 열고 학생들에게 상을 준다. 상의 본래의 의미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담임 교사는 교내대회가 있을 때 꼭 이런 말을 한다. "너네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1년에 상 하나 정도는 받아야 세특(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쓸 거 있다.", "이번에 OO 교내대회가 있으니 상 안 받은 친구들은 어떻게든 하나라도 받아 세특 쓸 수 있게 하자."

학교내 대회의 목적, 상의 목적이 오로지 입시용 스펙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너무나 객관적인 사실이 되어 있다. 상을 받아 자존감이 오르고 인정받음에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특의 공간을 메우기 위한 용도로 그저 상이 필요할 뿐이고 그것을

위해 상 받을 만큼 뛰든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A고등학교의 B학생이 교내 양심짓기 대회에서 자기가 생각한 양심의 정의, 양심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등의 내용으로 현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글을 적었다. 그런데 담당 교사는 "이 대회는 이런 주제를 적으면 상을 받지 못한다.", "너의 주관적인 생각보다 정서적인 논리와 생각이 들어가야 상을 받지 않겠나.", "양심을 자기 생각만을 중심으로 두고 글 자체를 비판적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과연 학생이 잘못된 것인가? 교사의 지도가 옳은 것인가?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사회에 나가 그대로 실천한다. '상'은 공정한 평가의 산물이다. 그렇게 배웠고 또 그래야 '상'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다. 학교에서의 '상'은 더욱 그러해야 할 마땅하다. 그런데 입시라는 블랙홀같은 어마어마한 목표 때문에 '상'의 본래의 가치도 사라지고 '상'을 위한 평가도 그 공정함을 잃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노력의 결과와 공정한 평가에 따른 '상'이 아니라 '상'이 필요하니 그 '상'이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야 하는 현실을 거부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어렸을 땐 받기만 해도 좋았던 '상'이 지금은 대학 입시의 도구가 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취재/ 하윤지(삼현여고2)기자]

시험 문제 잦은 수정! 책임은 NO!

출제교사의 반복되는 시험문제 오류, 불이익은 학생들만의 몫

학생들에게 시험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할 길도 없는 숙명 같은 존재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으로 진로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학교생활중 하나다. 고등학생은 한 학기에 4번 시험을 친다. 2번은 내신에 포함되는 시험이고, 2번은 수능을 준비하는 모의고사 시험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내신시험을 칠 때면 항상 곤욕을 치른다. 시험지의 오타는 기본이고 문제 자체가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재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

시험 시간 중 문제 수정으로 교사들의 잦은 공지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방송으로 또는 직접 교실에 찾아와 직접 문제를 수정한다. 고학년일 수록 시험에 있어서 1분 1초가 정말 귀한 시간이다.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늘 준비한다. 또 학생들 간 차이는 있지만 스트레스를 적잖이 받는다. 교과서, 부교재, 보충 학습 등으로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낸다. 안타깝지만 이 모든 것이 오직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런데 시험 당일 주변

환경에 의해 시험 문제를 다 풀지 못하거나 집중을 하지 못해 문제를 틀리게 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다.

진주 J고는 평균적으로 한 시험당 4번 정도의 문제 수정이 있다. 대부분의 다른 학교들도 혼란 풍경이라고 한다. 애초에 문제를 잘못 낸 경우가 허다했고 객관적이지 못한 문제에 대한 추가적 해설을 위해 교실 문을 거칠게 열고서는 '문제 푸는 것을 중단하고 ○○문제를 보십시오.' 하며 큰 소리로 문제 수정 공지를 한다.

학생들은 늘 당황스럽다. 늘상 있는 일이지만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시험지를 보며 문제를 풀던 흐름은 모두 끊긴다. 문제의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또한 시간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추가적인 시간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에 시험 시간 손실은 학생 몫이 된다. 어쩌다 한 번의 문제 수정은 있을 수 있지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수 차례 문제 수정을

반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행위다.

출제된 문제를 확인한 후 인쇄를 했지만 늘 있는 문제 수정, 문제의 답이 없는 것으로 판명 되어 재시험을 치는 경우들은 명백히 출제자 잘못이고 그 책임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도 불이익은 아무 힘 없는 학생들에게만 주어진다. 왜 잘못을 저지르고 책임 지지 않는지 학생들은 묻는다. 하지만 답변은 없고 똑같이 잘못을 반복한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시험이 끝난 후 문제의 오류로 인해 답이 바뀌는 경우다. 시험시간 문제를 푼 학생은 답이 틀리고 오히려 찍어서 얻어 걸려 문제를 맞게 되는 학생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공부를 안 하고 대충 찍은 학생과 공부를 해서 문제를 푼 학생이 출제 문제의 오류로 인해 시험 결과가 뒤 바뀐다면 이 일



마나 불공평한 것인가? 특히 문제 하나에 등급이 달라지는 치열한 입시경쟁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내신 시험의 결과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자들의 노고도 분명히 인정해야 하지만 시험때마다 원하는 결과를 위해 한 달 또는 2주를 밤새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 공정하게, 시험지에 문제가 없도록 학교에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교사들은 오타 하나도 놓치지 않는 문제 없는 시험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취재/ 안서진(진주여고2)기자]

[JOB을 잡아라] 대추나무한의원 윤재은 원장을 만나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아프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측은지심이 생겨야...

Q.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진주 대추나무한의원에 윤재은 원장입니다. 한의원을 한지 한 20년 됐습니다. 전공이 한방소아과입니다.

Q. 한의사는 어떤 직업인지 설명해주세요.

A. 한의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인체를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MRI라는 현대 의학 장비로 병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한의사는 이뿐 아니라 병의 근원을 파악합니다. 질병이 생길 때는 인체에 균형, 생리학적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한의학은 쉽게 얘기하면 그 균형을 바로 맞추는 치료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은 병의 치료에 있어서 좀 더 본질에 가까운 학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어떤 계기로 한의사를 선택하셨나요?

A.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잘 가는 전통 찻집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 찻집은 늘 고향도 나고 녹차향도 나고 국화향도 났었고 그런 향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를 보고 찻집 아주머니가 그런 향기와 식물을 통해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한의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
의사는 기본적으로 어질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환자를 보살필 마음이 우러납니다."

Q. 한의사가 되기 위한 조건 같은 게 있을 거 같은데?

A. 일단 성격이 좋아야 합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전공을 떠나 불쌍한 사람들 보면 측은지심이 생겨야 합니다. 어떤 도와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돈벌이에 관심이 앞서면 곤란합니다. 식상하지만 그다음 성실

해야 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이라면 그 성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Q. 한의학하면 보통 침을 많이 생각하는데 피가 나가거나 잘못 찔렸을 때는 어떻게 하신가요?

A. 그럴 때는 막 놀라면 안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놀라게 되면 위급했을 때 의학적 지식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뭉툰 혈관 찌르다가 피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소독을 해야 하겠죠?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소독을 하고 정상적인 혈전에 침을 다시 놓으면 됩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신가요?

A. 입이 돌아갔던 환자가 있었는데 치료가 잘 안되어 계속 마음이 쓰였어요. 한 3개월 정도 정성을 쏟았는데 날씨 등 주변환경도 좋아지면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 극적으로 호전됐던 환자가 기억납니다. 또 대아고 고3 학생이 아토피 때문에 찾아 왔는데 그 친구가 아토피 연고를 10년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고를 한번 끊어 보라고 했더니 3일 후에 얼굴에 고름이 엄청 생겼습니다. 그 친구

가졌습니다.' 말하고 한의원을 하면서 다시 공부를 병행해 그렇게 가고 싶었던 서울대 물리학과를 갔었어요. 그 선택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선택에 허락을 얻어 저도 같은 '대추나무' 한의원의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Q. 한의원의 의료보험은 어떤가요?

A. 침은 지금도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정부 정책으로 모든 한의원도 조망간 의료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행 예정입니다. 정책이 안정되면 몇 년 후엔 한의원 의료보험도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은 확대되는데 노인인구는 늘고 청소년인구는 줄다보니 미래세대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Q. 힘든 점, 좋은 점이 있다면?

A. 불췌 손목을 내밀어 '맥을 짚어서 어디가 아픈지 맞춰 보세요.' 라는 등 환자로서의 인격이 결여된 행동을 하면 참 힘듭니다. 예전 보단 그런 분들은 많이 줄었지만 그런 환자에겐 마음이 상합니다. 저희는 또 의료 사각지대의 환자를 모셔서 무상으로 치료해주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미안해 하며 오시

는 걸 꺼려 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좋은 점이 아 환자가 치료가 잘되어 많이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그 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Q. 한의사를 준비하는 친구에게 조언 해주신다면?

A. 의사가 되기 위해 현실적으로 공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한다고 환자를 잘 치료한다는 등식은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성실하고 환자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들, 의사는 기본적으로 어질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환자를 보살필 마음이 우러납니다. 그런 학생들이 한의대를 향했으면 합니다.



한의사? 궁금타파!

한의사가 되려면?

대학교 한의학과에 진학해 예과 2년, 본과 4년의 수업을 받은 후 한의사 학위를 받는다. 한의학과에서는 동양사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침구학, 본초학 등의 동양의학의 배운다. 이들 서적은 대부분 한문으로 쓰여 있다. 학위 취득 후 한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한의사로 일할 수 있다. 면허를 받은 후 병원에 근무하면서 어떤 분야에서 일할지 탐색, 결정한다.

어떤 적성이 필요할까?

한의학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한다. 환자의 병을 알아내고(진단), 적절한 처방을 하는(치료) 것. 일단 환자를 대할 때는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는데, 마치 CSI 요원이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 범인을 밝혀내는 과정과 흡사하다. 냉철한 수사관과 같은 자세, 이성적, 논리적인 두뇌가 필요하다. 그런데 치료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치료를 하려면 병이 사람과 결합된 상태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병'뿐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습관, 체질 등을 전반적으로 알아야 한다. 이는 환자와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해야 자세히 알 수 있으므로 아픈 사람에게 공감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수다. 더불어 환자를 배려하는 자세와 봉사정신, 친절함 태도 등을 갖추면 좋은 한의사가 될 수 있다. 병원을 직접 운영하려면 경영관리 능력도 필요하다.

한의학, 어디에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한의학과가 총 12개 있다. 2021학년도 입시 기준 총 입학인원은 758명이다. 입학 희망자에 비해 정원이 적어 경쟁률이 매우 높다. 올해 수시모집 경쟁률은 평균 29:19:1을 기록했다.

[전국 한의대 2021년 수시모집 현황]

학교	지역	정원	수시 모집	경쟁률
가천대	성남	30명	17명	20.94 : 1
경희대	서울	108명	인문 20명 자연 53명	인문 97.8 : 1 자연 48.75 : 1
대전대	대전	75명	인문 20명 자연 30명	인문 16.1 : 1 자연 14.8 : 1
대구 한의대	대구	108명	인문 28명 자연 50명	인문 21.67 : 1 자연 26.68 : 1
통국대	경주	72명	인문 7명 자연 35명	인문 24.71 : 1 자연 28.11 : 1
통신대	나주	40명	20명	39.8 : 1
통의대	부산	50명	27명	24.04 : 1
부산대 한의전	부산	50명	20명	24.9 : 1
상지대	원주	60명	24명	32.25 : 1
세명대	제천	40명	25명	21.81 : 1
우석대	완주	30명	인문 5명 자연 11명	인문 20.81 : 1 자연 25.18 : 1
원광대	익산	95명	인문 18명 자연 36명	인문 10.22 : 1 자연 12.64 : 1
총계		758명	446명	평균 29.19 : 1

한의사 2만4800명 중 64.6%는 한의원 근무

2018년도 기준 면허한의사 수는 지난 2009년 1만8333명에서 매년 평균 721명이 증가해 지난 2018년 2만4814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인력 수는 40만8645명에서 58만1869명으로 증가했다. 면허한의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의사 1인당 국민 수는 지난 2009년 2715명에서 2018년 2088명으로 점차 감소했다. 한의사 면허와 의사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는 복수면허자의 경우 면허한의사 대비 약 1.4%인 346명을 기록했다.

시설별 종사 한의사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면허한의사 수 대비 한의원에 근무하는 한의사 수의 비율은 2009년 70.5%에서 약 5.9%p 감소한 1만6027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병원에 종사하는 한의사는 2009년 1810명(약 9.9%)에서 3752명(15.1%)으로 약 2000명 가까이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요양병원의 증가와 의료기관도 대형화되고 있는 현재의 의료 추세가 한의의료기관에도 반영된 것이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 한의사의 경우 지난 2010년 78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



2018년에는 5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병역 대체로 복무하는 공중보건한의사(보건소 및 보건지소 포함)의 경우 지난 2009년 974명에서 2013년 775명까지 감소했다가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2018년에는 954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한의의료기관의 수는 지난 2009년 1만1856개소에서 2018년 1만4636개소로 약 3000개소가 증가했다. 매년 평균 309개소씩 증가한 것이다. 다만 한의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5년 약 21.9%에서 2018년 약 21.6%로 소폭 감소했다. 한의의료기관은 서울특별시 중구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의 한의의료기관 수는 약 5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IN 진주] 연암공과대학교편

전국에서 지원하는 '취업 명문 대학' LG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뉴칼라 인재 양성

2016년 연암공업대학에서 연암공과대학교로 변경



진주시에 소재하는 학교법인 LG연암학원 소속의 사립 전문 대학. 연암공과대학교는 1973년 학교법인 연암학원이 설립인

가를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81년 연암 공업전문대학이 설립인가를 받아 1984년 5월 개교했다. 1996년 영국 노덤버리아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1998년 교명을 연암공업대학으로 바꾸었다. 2004년 산학협력단이 발족했다. 2013년 3년제 스마트융합학부를 신설했다. 2016년 지금의 연암공과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부속 및 부설기관으로 도서관, 산학협력단과 창업교육센터가 있다. 기숙사는 257실을 갖추고 695명을 수용한다. 이 대학의 3년제 과정 신입생 전원에게는 LG가 입학 첫 학기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기계공관 학생에게는 기숙사비도 지원한다. LG그룹과 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최첨단 실험실습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24시간 개방되며, 교수 1인당 학생 30명 안팎으로 전문대학 최고 수준의 전임교수 확보율을 자랑



한다. 대학의 운영과 학사관리는 물론 졸업생들의 취업까지 LG 그룹이 맡아 운영한다.

전자전기계열 (2년제), 조선자동차항공기계계열 (2년제), 스마트소프트웨어학과 (3년제), 기계공학과 (3년제), 스마트전기전자공학과 (3년제), 산업정보디자인계열 (2년제), 스마트소프트웨어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총 6개의 과로 구성되어있다. 시내버스 130, 131, 132, 133, 134,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71, 210, 380, 381, 390, 391를 이용하면 된다.

경쟁률 6:1, 연평균 등록금 547만원

2020년 기준 재학생 수 2571명이다. 대부분의 공업계열의 대학, 과는 남녀비율이 남자쪽으로 치우쳐있는데 연암공과대학 역시 남녀비율 중 남자가 훨씬 많은 편이다. 2020년 기준 재학생의 남녀비율은 남학생이 96%로 약 2,469명, 여학생이 4%로 약 102명이다.

2020년 기준 3105명이 지원했지만 모집 인원은 575명으로 경쟁률은 6:1 정도다. 2021년 모집요강 기준 총 모집인원은 560명이며 수시로 거의 대부분인 535명을 뽑는다. 연평균 등록금 547만원이다. 대학의 운영과 학사관리는 물론 졸업생들의 취업까지 LG그룹이 맡아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취업률도 79.8%이며 대기업 취업률은 50.5%에 이른다.

전국에서 지원하는 취업 명문 대학

연암공대가 소재한 곳은 지방 중소도시인 경남 진주다. 하지만 매년 지원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지역 학생들에 국한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19학년도 지원자 기준 경남 지역 학생은 41%로 전체 지원자의 절반이 넘지 않았다. 수도권을 비롯한 충청 이북 지역이 12%, 광주 전라지역 29%, 부산·울산 지역 12%, 대구·경북 지역 5% 등 전국에서 지원자가 고르게 분포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 상위권 취업률뿐만 아니라 높은 '유지취업률'로 대변되는 취업의 질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년 간 전체 취업률은 평균 79.8%로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최근의 대학정보공시 기준 유지취업률은 83.2%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일부 특수 목적 대학을 제외하면 전국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치다.

유지취업률이 높다는 것은 양질의 취업처로 취업했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대

목이다. 실제로 우리 대학의 대기업 취업률은 지난 8년 간 50.5%로 전국의 어느 대학과 비교해도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8년, 2019년 대기업 취업률은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해 대학 자체 집계 기준 각 56.8%, 53.0%에 이르고 있다.

LG와의 지속적인 산학연계 통한 안정적인 취업처 확보

높은 대기업 취업률의 배경에는 모기업인 LG와의 지속적인 산학연계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취업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LG계열사 외에도 강소기업, 해외기업으로까지 취업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취업에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다양한 대기업으로 진출하기에도 용이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정규·비정규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면 취업 경쟁력이 높은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

TMI 연암공대 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Q. 연암공대 선택이유?
"면접때 교수님이 믿음을 주셨다" "LG그룹 쪽에 취업 할 수 있는 학교다." "아버지도 LG에 근무하고 계셔서 지원했다." "입학 설명회 때 대기업 LG 같구나."

Q. 연암공대의 대학생들은?
"학식 먹으러 가다 잔디밭에서 밴드부가 공연하는 거 보면 새롭고 학식도 맛있고 그렇습니다."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를 수는 있어요. ^^ 동아리는 주로 전공동아리라서 공부하는 쪽이에요." "취업이 목표인 학교다 보니 이런저런 활동은 그닥~"

Q. 연암공대생에게 기숙사란?
"어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 "뭐 먹고 술 마시러 가려면 나가는데 15-20분 걸리니까.. 나쁘지 않죠. 2인실 밖에 안 살아봤는데 좁은 듯 적당한 듯 그 정도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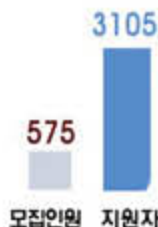
Q. 연암공대생의 취업?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느냐 아니면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취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학점도 잘 따고 자격증도 준비 잘 하면 잘 되지 않을까요?" "학교에서는 대기업 쪽으로 잘 보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준비 정도에 따라 교수님들이 취업시키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

하시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대부분 선배들이나 졸업생들보면 LG계열사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물론 학점을 잘 받아야만 합니다."

Q. 연암공대 입학 전 꿀 TIP?
"기본적으로 수학! 미적, 적분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공대다 보니까 물리, 화학 이런 것도 약간이지만 지식 같은 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업 수학 1학년 때 문과 출신 분들이 어려워 하더라고요. 전기 전자를 공부 하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자격증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아요."



연암공과대학교

재적 학생 수
2,571명입학 경쟁률
6:1 (단위: 명)등록금연방
연평균 547만원

[우리 대학 이렇게 뽑는다]

특성화된 공업계 대학이지만

문·이과 구분 없이 교차 지원 가능



연암공대는 공업계 특성화 대학이지만, 문·이과 구분 없이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 일반고 인문반 학생을 비롯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이라도 대학 입학 후 물리와 수학, 화학 등을 보충할 수 있는 여러 정규·비정규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공학계열로의 적응을 돕고 있다.

수시모집은 모든 전형이 학생부 중심 전형 (정원 외 전문대졸 이상, 외국인전형 제외)이다.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은 학생부 90%, 면접 10%다. 학생부 성적은 교과 영역만 100% 반영한다. 학생부 교과 영역은 석차등급이 자연수로 표기된 1학년~3학년 1학기 전 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학년별 반영비율은 1학년 35%, 2학년 35%, 3학년 1학기 30%다. 과목별 가중치는 없지만 이수단위가 반영되기 때문에 국·영·수 등 이수단위가 높은 주요 과목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학생부 기본점수를 제외한 실질반영비율은 모든 학과에서 30%로 동일하다.

■ 수시1차, 수시2차 각각 최대 2개학과 복수지원

2021학년도 수시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복수지원을 들 수 있다. 연암공대는 그동안 1개학과 1개 전형으로만 지원 가능해 복수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학과 선택에 대한 고민이 컸었다. 이에 수험생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2021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최대 2개학과에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단 모든 모집단위에 대해 자유롭게 지원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전공 유사성을 가진 학과끼리만 가능하다.

세부적으로는 전자전기계열(2년제)과 스마트전기전자공학과(3년제), 조선자동차항공기계계열(2년제)과 기계공학과(3년제)끼리만 최대 2개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 스마트소프트웨어학과(3년제)는 복수지원 해당 없이 단일 학과로만 지원 가능하다.

[TOP클] 삼현 Top 하선빈에게 듣는 공부이야기

삼현여고의 TOP이다!

미래 교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비법전수!

필통의 [TOP클]은 어떤 분야에서 동급 최강의 실력을 갖추게 된 친구들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필통의 독자가 학생이다 보니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이 공부가 되겠죠. 그런데 공부도 여러 분야로 나뉘어 질 수 있고 공부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실력을 쌓은 친구들이 우리 주위에는 적지 않습니다. 또 조금은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에서 꾸준한 연습과 노력으로 범접하지 못할

능력을 가진 친구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최고의 수준에 이르기까지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따라하고 배우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유들을 하나씩 공감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호의 탑클은 진양고등학교 '공부' TOP 이야기입니다.



진짜 공부TOP 맞아? 공부방법 알려줘!

Q. 방학과 코로나로 장시간 등교를 못했는데 어떻게 공부했나요?

A. 저는 주로 방학에는 국어, 수학, 영어를 공부해요.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매3문, 매3비 등으로 기출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국어의 기술을 공부했어요. 수학은 2학기에 할 것을 예습하면서 1학기 수학을 복습했습니다. 영어는 모의고사를 풀고 지문을 분석했어요.(글의 흐름을 파악한 뒤 주제, 뒷받침 문장, 예시 등을 찾으려 분석했어요.) 단어도 외우고요. 국어, 수학, 영어 공통적으로 모의고사를 풀고 오답노트를 작성했어요.

Q. 새 학기를 선행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선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자신이 배운 것도 습득하지 못한 채 무작정 선행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해요. 이전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 그것을 먼저 내 것으로 만들고 난 후 선행이 가능하죠.

Q. 복습이 효과적인가요, 예습이 효과적인가요?

A. 이전 시간에 배운 것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하였다면 복습이 더 효과적이고, 이전 시간에 배운 것을 습득하였다면 복습, 예습 둘 다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Q. 특별한 공부법이 있나요?

A. 공부하다가 지루할 때는 A4용지 또는 화이트보드에 내용을 적어가면서 남에게 가르쳐 주듯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 지루한 것도 사라지고 기억에도 오래 남고 어떤 부분의 공부가 부족한지 알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효과 있어요. 특별한 왕도는 없는 법이죠.

Q. 주로 어디서 공부하나요?

A. 중학생 때는 도서관과 집,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학교와 집이죠. 다른 친구들은 독서실을 많이 간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독서실을 가 본 적이 없어요.

Q. 공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한 공부법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sns에 올리기 위해 서라도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동기부여

의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sns에 올릴 시간에 공부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정도 시간은 공부를 한 뒤 성취감을 느끼는 시간+휴식시간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공부하는 시간보다 sns를 하는 시간이 많거나 sns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되면 안되겠죠.

Q. 사탐 공부법을 알려주세요!

A. 사탐 모의고사는 아직 '공부했다.' 라고 생각할 만큼 공부하는 안 해봤어요. 그래서 내신 위주로 설명해보고 싶지만 내신은 '교과서와 부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했다.' 밖에 할 말이 없네요.

Q. 시험기간 징크스나 루틴 같은 게 있나요?

A. 징크스는 없고 시험기간에 루틴은 학교 가는 날에는 학교-집이고 주말에는 집에서만 있습니다. 시험기간에는 밥, 양치, 화장실, 잠자는 시간 등 필요한 시간 외에는 거의 공부만 한다고 보면 되니까 루틴이 정말 단조로워요.

1학년 1학기 내신 평균 : 1.1

1학년 2학기 내신 평균 : 1.6

1학년 총내신 : 1.4

"시험기간에는 밥, 양치, 화장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공부만 한다고 보면 되니까"

Q. 마지막으로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나요?

A. 따뜻한 선생님, 친구 같은 선생님, 학생들에게 그런 선생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자들이 저를 떠올렸을 때 마음 한편에서부터 미소가 피어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취재/ 진서영(진주여고2)기자]

[SOS 닥터스]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언제든 발생하는 응급상황엔 이렇게...

골든타임은 기다려 주지 않아!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쓰러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119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 즉 대부분이 '심폐소생술'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만다. 의식을 잃은 환자의 경우는 약 4~5분, 저체온증 환자의 경우에는 2시간 이내가 골든타임이다. 긴급상황 발생시 응급처치요령이다. 꼭 알아 두자.

하지만 대중적으로 알려진 심폐소생술 외에 긴급한 응급처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심폐소생술 외에도 다양한 응급상황이 발생한다. 응급처치를 몰라 우왕자왕하는 동안에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간다.

1. 하임리히법



주로 명절의 떡, 알사탕, 낙지, 컵 젤리와 같은 이물질이 기도에 걸려 발생하는 기도폐쇄에서 사용하는 응급처치이다. 뒤에서 환자의 명치와 배꼽 사이를 껴안듯이 안고 순간적으로 강하게 후상방으로 당겨 올려서 강한 압력을 주어 이물질이 나오게 한다.

2. 벌에 쏘였을 때

빨갧게 부어오른 부위에 검은 점처럼 보이는 벌침을 찾은 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피부를 긁어내듯이 침을 제거해야

한다. 이때, 손톱으로 여벌에 쓰이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빨갧게 부어 오른 부위에 검은 점처럼 보이는 벌침을 찾은 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피부를 긁어내듯이 침을 제거해야 한다. 이때, 손톱으로 여드름을 짜듯이 빼려하거나 핀셋으로 빼려하면 안 된다.

3. 염좌



흔히 우리가 '삔었다.' 라고 얘기하는 염좌는 상태에 따라 응급처치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심하지 않는 염좌의 경우, 관절을 쉬게(Rest), 얼음찜질을 하거나(Ice), 압박붕대로 부종을 눌러주거나(Compression), 다친 관절을 들어주는(Elevation) 등의 치료방법인 RICE 법을 취해주면 된다. 만약 RICE법을 취하고도 통증 부위가 붓고 진통이 계속 된다면 곧바로 병원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4. 해파리에 쏘였을 때

주로 해변에서 해파리에 쏘였을 땐 그것이 해파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식초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은 일부 해파리만 해당 될 뿐이기 때문에 확실한 처치방법은 아니다.

1) 바닷물로 상처를 깨끗이 세척한다. 만약 수돗물로 상처를 세척하면 독소가 분비될 수 있으므로 수돗물 사용을 절대 금

지한다.

2) 촉수를 제거할 때는 핀셋이나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절대 맨손으로 제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후에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

5. 의식 소실



사람의 의식이 소실되는 원인은 뇌종양, 뇌졸중, 뇌혈관 기형의 파열등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며 경련, 외상등으로도 의식 소실이 가능하다.

대개는 증상의 지속시간이 짧으면 완전히 회복되므로 특별한 처치술은 필요하지 않다. 환자가 실신을 했을 때는 우선 뇌혈류를 최대로 늘리기 위해 머리를 최대한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앉아 있는 경우에는 머리를 양 무릎 사이로 내리고 누워 있다면 다리를 올려야 한다.

꼭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주고 머리를 측면으로 허가 기도를 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겐 물이나 음료등을 먹여서는 안된다.

[취재/ 김태희(진주제일여고1)기자]



필통 우체통은 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의 독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필통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편지, 고백글, 여러분의 학교나 생활속의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공감하고 기뻐하고 웃음을 줄 수 있는 많은 얘기를 남겨주세요.
<참여하시고 싶은 독자분들>
 필통 홈페이지(www.feeltong.org)에 따로 마련된 <필통 우체통>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매일 신문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특으로 사연과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필통우체통

To. 경남 체고 역도부



경남 체고 역도부 파이팅!!

From. 응원합니다. 익명



To. 7반 공주들

자기들 안녕 ㅎㅎ 내가 서프라이즈로 불러 했는데 들려버려서.. 반 복되는 시험기간,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고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 그리고 코로나19 항상 조심하고!! 사랑해

From 세동이가

to. 13대표기요미들

1-3 대표 기요미 하나, 유자니, 선바니. 편지 쓰는 거 모를거리에 너희를 위해 특별히 써준다. 학교에서 맨날 보는데 왜 밖에서는 안보냐?? 우리 진짜 웃긴 게 4명에서 다 같이 논거 1번 밖에 없음. 다 내 탓인가? 아무튼 온종일 끝나고 학교에서 보자~ 코로나 좀 잡히면 놀러가자~ 코로나 조심하고~ 사랑해~

From. 영이니



To. 재덕이

아껴다가 내가 너한테 이런 걸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밤마다 나랑 루미큐브 해주는 유일한 친구 재덕아!! 화장 된 거 축하해!! 사실 절대 안 될 거 같았는데 내가 화장 됐다길래 구라치는 줄 알았어 ㅎㅎ 개구쟁이지만 은근 성실하고 나랑 잘 놀아주는 재덕이!! 예쁜 점 하나도 없지만 내가 제일 재밌어. 조만간 우영이랑 셋이서 만나자~ 내가 항상 너한테 친구 없다고 놀리는 거 진심이야 ㅎㅎ 사랑해~ 오래 보자

From. 재덕이

To. 질링 다공 밀링

하이! 애들스~ 난 자칭 귀요미 선바니. 너네 아마 이 편지를 보면 깜짝 놀라겠지? 반응이 너무 기대되는군(ㄹㅇ) 우리 친해진지 겨우 1년? 밖에 안됐는데 1년이라는 시간동안 진짜 많이 친해진 거 같다. ㅎㅎ 우리 앞으로도 이 우정 변치 말자! ♥ 수능 끝나고 우점여행 가는 것도 맞지마. X

From 선바아



To. 사랑하는 친구들 형준 준성 주환 상석 현규 지원이에게^^

아들아~ 다들 잘 지내고 있나. 이 형은 잘 지내고 있단다. ㅋㅋ 우리 만났던 게 몇일 안 되거 같은데 벌써 3년이란다. 진짜 시간 빠르게 가네~ 중학교 땐 질리도록 봐서 몰랐는데 지금은 그 때가 진짜 좋았던 거 같다.^^ 우리 다음 정보 너저덜 샘 끝나고 주말이니 까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잘 살다가 보자 사랑한다! 친구들~

From. 존잘 재혁 함님.



To. 9반



안녕 우리반 부반장이야. 깜짝 등장 해봤어~ ㄹㅇ ㄹㅇ 코로나로 왠지 멀리 떨어진 것 같아서 이렇게 보고 싶어서 편지 쓴다. 인스타에 글을 너무 많이 써서 또 무슨 말을 써야하나 싶긴한데, 다들 9반 생각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 반 배정도 잘 됐고 늦게 개학한 걱정들이 무색하게 다들 너무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다 뿌듯하당.^^ 우리 반 너무 착하고 뛰어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다들 멋있고 서로 파이팅하면서 잘 해내서 너무 좋아.

이거 볼 때 쯤이면 학교도 모두 정상등교하고 또 각자 열심히 살고 있을텐데 우리반 모두 다 내가 항상 응원하고 진짜 좋아한다!

그럼 이만 민망하니까 도망가도록 할게요. 안녕! 종종 찾아~ 선생님도 제가 아주 응원하고 좋아 합니다. ㅎㅎ

From. 지나가던 파카알.

To. 선필소흔,민우오빠,진우오빠,현수오빠,상우오빠,성호오빠

나 누구지 알지? 귀요미 ㅎㅎ 선필, 소흔이 빼고는 다 알게 된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다들 때로는 한대 때리고 싶지만 착하고 순둥하고 ㄹㅇ ㄹㅇ 아무튼 고맙다고~ 놀아줘서~ 선필, 소흔이는 뭐 거의 소울메이트 인정? 오빠들 수능이랑 다른 시험 다 끝나고 우리도 다 끝나면 각 잡고 놀러가자! 아~ 그리고 젤 중요한 거 나, 선필, 소흔 20살 되면 그거 알게 다같이 모여서 축하해 줘야 하는 거? ㄹㅇ ㄹㅇ 무엇을 하든 응원할게! 다들 이 자선언니, 누나가 사랑한다.♥

From. 귀요미



to. 더딘윤디

이렇게 글로 얘기하려니까 넘넘 미안하다. 부끄러워잉~ 필통 회의하는 날이 아니더라도 시간 내서 만나는 것도 넘 좋귀 전화 자주하는 것도 너무 좋아. 고삼 땐 다 바빠태니까 몰래 더 열심히 놀자. 나 너네 넘 사랑해! 아거 진심이야. 구라 아님. 우리 또 마시는거~ 먹으러가자~ 아거 보고 올아줘. 감동 받아서 눈물설까? 보내줘. 왕사랑해!!

From. 감기티



